



해외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선도 사례 및 KOICA 향후 추진방안

2022. 5

해외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선도 사례 및 KOICA 향후 추진방안

2022. 5.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임 현 목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공동연구원

조 대 훈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 지 향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박 민 정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이 연구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임현묵, 조대훈, 이지향, 박민정. 2022. 해외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선도 사례 및 KOICA 향후 추진방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흐름	7
1.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개념 정의: 유네스코와 옥스팜	7
2. 국내외 연구문헌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	10
3. 유럽의 세계시민교육 사업 동향	13
4.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22
III. 주요국 공여기관 사례 분석	27
1. 덴마크	27
2. 독일	28
3. 스위스	29
4. 아일랜드	30
5. 영국	33
6. 오스트리아	37
7. 프랑스	39
8. 캐나다	39
9. 소결 및 시사점	41
IV.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및 주요 사업 분석	43
1.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43
2. 주요 사업 현황 및 특성	55
3. 소결 및 시사점	62

V. 결론 및 제언	64
1. KOICA 세계시민교육 비전 및 전략 제언	64
2. 추진방안 제언	64
참고문헌	72
부록. 보이스아이코드	78

표 목차

〈표 I-1〉 전문가 토론회 프로그램	6
〈표 II-1〉 유네스코와 옥스팜의 세계시민교육 학습/목표 영역 분류	8
〈표 II-2〉 SDG 4.7 및 5개 세부지표	9
〈표 II-3〉 세계시민교육의 네 가지 접근방식	12
〈표 II-4〉 DEAR 2016년 및 2018년 사업 공모 내용 비교	14
〈표 II-5〉 GENE 참가국 및 국별 기관(2021년 기준)	16
〈표 II-6〉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요 국제사회 프로그램 내용 비교	25
〈표 III-1〉 Connecting Classrooms 참여 수원국 현황(2021년 기준)	36
〈표 III-2〉 주요국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방식	41
〈표 IV-1〉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	45
〈표 IV-2〉 국내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53
〈표 IV-3〉 국내 GNLC 가입도시 명단(2020년 12월 기준, 총 50곳)	54
〈표 IV-4〉 KOICA의 세계시민교육 주요 사업	56
〈표 IV-5〉 APCEIU 세계시민교육 사업	58
〈표 IV-6〉 광명 GCC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61
〈표 IV-7〉 광명시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내용	62
〈표 V-1〉 협력국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KOICA 사업 개선안	70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개요	3
[그림 II-1] 글로벌교육 지침서의 글로벌교육 개념도	19
[그림 II-2] 세계시민교육 관련 NGO 예산 지원 기구	21
[그림 III-1] The World Class 주최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진(2020)	28
[그림 III-2] Humanity Project Concept 소개자료	30
[그림 III-3] Irish Aid 조직도	31
[그림 III-4] Irish Aid Centre 워크숍 진행사진	31
[그림 III-5] Irish Aid: 세계시민성 리터러시 향상도 평가문항	32
[그림 III-6] Austria Development Agency(ADA) 조직도	38
[그림 IV-1]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사업비율(2020)	47
[그림 IV-2]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사업유형별 비중(2020)	47
[그림 IV-3]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 전략체계도 상의 세계시민교육	49
[그림 IV-4]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워크	59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2000년대 세계화가 심화되며 국민국가 단위의 시민성을 넘어서는 세계시민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조되어 왔다(Davies 2005: 75). 유엔은 2012년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발표하며 국제사회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 영역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성 함양을 제안하였다(UN, 2012).

이후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2015년 인천에서 개최한 세계교육포럼의 결과물인 『교육2030 실행계획(Education 2030)』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4.7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국은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을 개최하며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 계획(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국내 여러 기관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경제 불평등 같은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한 대중 인지 제고 및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공여국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적 지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국제개발협력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을 강화하기도 했다(이태주, 2010).

2015년 SDGs 수립을 전후로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이 주요 교육의제로 부상하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개발교육의 문제의식을 포괄하는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등의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했다(한국국제협력단, 2019). 일례로 유럽 국가들은 2001년 유럽 글로벌교육 네트워크(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를 설립하며, 동료평가, 정책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정책학습을 증진해왔다. 아울러 유럽의 구호 및 개발 NGO 네트워크인 CONCORD(2018)에 따르면 18개 OECD DAC회원국¹⁾이 공여기관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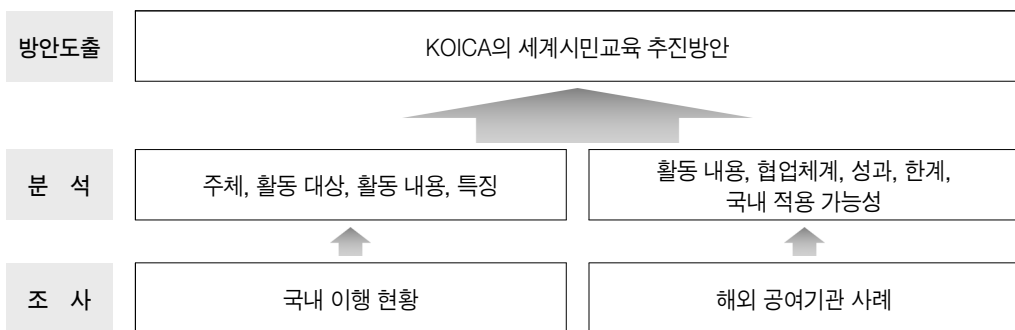
실시 중이며, 주로 시민단체,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세계시민교육을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빈곤, 상호의존성, 평화, 환경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하지만 KOICA 및 국내 다양한 기관들의 세계시민교육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교육을 받아본 국민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2019년 ODA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제개발협력 또는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8%로 조사되었다(김은주 외, 2019).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흐름,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해외 공여기관 세계시민교육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KOICA 세계시민교육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유엔과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주요 공여국의 세계시민교육 접근법을 살펴봄에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후 해외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사례와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KOICA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과 더불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개발 NGO 등 국내 주요 실행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개요

1)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 취지에 맞춰 문헌연구, 사례연구,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문헌연구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SDG 4,7 관련 자료, 유네스코와 옥스팜(Oxfam)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자료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개념적 정의, 주요 관점, 정책적 접근법 등을 정리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네트워크들의 문서를 중심으로 유럽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 유럽 국가들의 개발교육을 분석한 박수연·이종현·전지은(2007), 박수연·이상백(2013), 박수연(2014, 2015, 2017) 등을 참조하였다.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자료로는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실태를 보고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이성희, 2015)의 연구보고서와 APCEIU(조대훈, 2018)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또한 APCEIU(한송희, 2019)의 국내 평생교육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잠재적 활성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궁연(2017)은 한국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행을 분석하였으며, 유성상(2016)은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대만의 교육연구자들의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국내 개발 NGO의 세계시민교육을 분석한 연구로는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신재은·한재광·이경신(2010), 신상협·박수연·이지연(2014),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5), 신재은(2017)의 연구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을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심희정(2016)의 연구가 있다. 개발 NGO의 자체 연구로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한국 월드비전(2015)이 있다.

이들 국내 기존연구와 더불어 KOICA의 문헌 및 다른 관련 기관들이 발간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세계시민교육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를 살펴보면 국제개발과 관련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국제개발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교육 수행 주체(공교육, 개발 NGO, KOICA 등)에 따른 세계시민교육의 정의, 내용 차이 분석, 활동의 특성과 한계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유럽의 개발교육 분석

나. 사례분석

해외 및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정책문서를 수집하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학술논문, 사업결과보고서 등 2차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1) 해외 사례

유럽 NGO 네트워크 CONCORD(2018)에 따르면 OECD DAC회원국 중 18개 유럽 회원국이 공여기관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 연구에서는 18개 유럽 회원국 중 2019년 기준 ODA/GNI 비율이 한국을 상회하는 덴마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요 7개 회원국 및 비유럽 DAC 회원국 캐나다의 사례를 중점 검토하여 KOIC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내 사례

동 연구에서는 교육부 및 KOICA 등 정부기관, 개발 NGO 등 시민단체,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세계시민교육 현황 및 주요 사업을 분석하였다.

- 교육부는 APCEIU를 세계시민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PCEIU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 아이스크림 원격강좌, 자료 개발, 대학 세계시민교육 강좌 지원,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자체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수행 중이다.
- KOICA는 대국민 ODA 이해증진 및 지지기반 강화 차원에서 ODA교육원, 지구촌체험관, 월드프렌즈빌리지, 국제개발협력센터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국내 청소년의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2020년부터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의 MOU를 통해 전국 청소년지도자 대상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한마음한몸운동본부, HOE 등 국내 NGO 또한 지구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19년 기준 약 28개 NGO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KOICA ODA교육원·KCOC, 2019).
-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주요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이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의 일환에서 강조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특히 평생교육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특화한 광명시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다.

다. 관계자 심층면담 및 전문가 토론회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국내 세계시민교육 실행 기관 관계자 심층면담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관계자 심층면담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파악 및 KOICA 세계시민교육 사업 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KOICA ODA교육팀(10.13(수)) 및 발전연대 피다(10.12(화)),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 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 (10.12(화))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2) 전문가 토론회

국내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실행 주체들의 실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KOICA와의 협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일 시 : 2021년 10월 22일(금) 14:00-16:40
- 장 소 : 벤틀스코리아 컨퍼런스룸II(종로 S타워 22층)
- 주 제 :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KOICA와의 협력 확대 방안

〈표 I-1〉 전문가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05(5분)	• 사 회 : 이양숙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부소장 • 인사말 : 임현묵 아태교육원장, 유지영 KOICA ODA교육팀 팀장 • 참가자 소개
14:05-14:20(15분)	• KOICA 위탁연구 중간 보고(이지향 경희대 객원교수)
14:20-14:30(10분)	• 주제발표 : KOICA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박수연 KOICA ODA교육팀 과장)
1부 국내 세계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KOICA와의 협력 방안	
14:30-15:30(60분)	• 발표 1 :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국내 세계시민교육 확산 (조한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발표 2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KOICA 와의 세계시민교육 (장성문 인재개발부장) • 발표 3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KOICA와의 협력 확대 방안 (장경원 광문고 교사) • 토 론 : 곽재성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2부 국내 세계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KOICA와의 협력 방안	
15:30-16:30(60분)	• 발표 1 : 교육 NGO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확대 방안 (정지현 HOE 공동대표) • 발표 2 : 개발 NGO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확대 방안 (남상은 월드비전 옹호 & 시민참여팀장) • 발표 3 : 해외봉사단 사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확대 방안 (류용호 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1팀 대리) • 발표 4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KOICA 간 협업 확대 방안 (박민정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연구원) • 토 론 : 홍영기 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16:30-16:40(10분)	• 정리 및 폐회

II.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흐름

이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의 정책 및 접근방식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접근방식을 분석한 연구 결과물, 국제사회 개발의제인 SDG 4.7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정책 방향, 그리고 유럽연합의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프로젝트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Project, 이하 DEAR)’ 및 ‘유럽 글로벌 교육네트워크(GENE)’ 등 국제개발사업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흐름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및 접근방식의 검토를 통해, KOICA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개념적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다.

1.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개념 정의: 유네스코와 옥스팜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 사회’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그에 따른 전 지구적 차원의 쟁점 및 문제들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본 방향과 목적을 지닌다. 유네스코와 옥스팜의 공식 문건, 그리고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관련 학자들은 현재 지구촌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예: 환경오염, 국제 분쟁, 여성 및 아동 인권 유린,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존의 단일국가 시민성에 기반한 시민교육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근대적인 시민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평화, 공존, 지속가능성 등을 지향하며,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및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세계시민 교육에 주목한다(김진희, 2015; 한경구 외, 2015; Oxfam, 2015; Pashby and Andreotti, 2015; UNESCO, 2015).

2000년대 이후 유엔과 유네스코, 옥스팜 등의 국제기구 및 단체가 제안한 세계시민교육 정책 구상 및 연구보고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전 세계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2012년 9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재임 시절 공표된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EFI)’은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새로운 교육의제로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기점으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교육 정책 담론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박환보 · 조혜승, 2016; 윤노아 · 최윤정, 2015).

유네스코가 발간한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는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UNESCO, 2013, p.16).

〈표 II-1〉 유네스코와 옥스팜의 세계시민교육 학습/목표 영역 분류

	학습/목표 영역	핵심주제/개념
유네스코	인지적 영역 (cognitive domain)	-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
	사회·정서적 영역 (social-emotional domain)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행동적 영역 (behavioral domain)	-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참여하고 행동하기
옥스팜	지식-이해 (knowledge & understanding)	사회정의, 형평성, 다양성, 세계화와 상호의존, 지속가능개발, 평화와 갈등, 인권, 권력과 거버넌스
	기능 (skills)	- 비판적·창의적 사고, 감정이입, 자아 인식과 반성, - 의사소통, 협동과 갈등 조정,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능력, 정보에 근거한 반성적 행위
	가치-태도 (value & attitude)	자아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인류애, 사회정의와 형평성을 위한 노력 및 관심, 다양성의 가치 존중,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헌신, 참여와 포용의 가치에 대한 헌신,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

〈표 II-1〉은 유네스코와 옥스팜이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 영역을 보여준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또는 목표 영역을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옥스팜은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Oxfam, 2015, p.8; UNESCO, 2015, p.29).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 중 하나는 유엔과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개발의제이다. 특히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P 원칙에 따라,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하는 총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SDGs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박성호 외, 2019).

이 중 SDG 4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세부목표인 SDG 4.7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담고 있으며, SDGs 실현에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SDG 4.7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하는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이러한 SDG 세부목표 4.7은 다른 6개 목표(4.1~4.6)와는 달리 기존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및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등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II-2〉 SDG 4.7 및 5개 세부지표

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에서의 주류화 정도
4.7.2	생활기술 기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4.7.3	(UNGA 결의 59/113에 의거) 자국에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정도
4.7.4	세계시민성 및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의 연령별(혹은 교육수준별) 비율
4.7.5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숙달된 지식을 가진 15세 학생 비율

출처: 'Scoping Progress in Education' 웹사이트 (<https://www.education-progress.org/en/indicators>)

2. 국내외 연구문헌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 분석 결과는 세계시민교육이 지난 30여 년 동안 뚜렷한 이론적, 정책적 흐름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포괄성과 논쟁성, 그리고 개별 국가의 특수한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접근방식이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박순용, 2020; 한경구 외, 2015; Davies et al., 2005; Davies et al., 2018; Gaudelli, 2009; Moraes, 2014; Roman, 2003; Wintersteiner et al., 2015).

학교 시민교육으로 한정해 볼 때, 세계시민교육은 Pike와 Selby(1988, 1995), Merryfield(1991, 1992) 등의 선구적 업적에 힘입은 ‘지구촌교육(global education)’ 분야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 단일국가 기반 시민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성장은 20세기에 걸쳐 지구촌교육(global education), 국제이해교육(educational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시민성(citizenship) 및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분야에서 누적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 또는 세계시민의식을 전제로 한다.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또는 지구시민성(Planetary Citizenship) 등과 동의어로 간주되며,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세계 차원에서 연대감, 집단 정체성, 소통 능력과 인류 공동 번영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세계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 공생,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길러낸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APCEIU, 2014; 한경구 외, 2015; Oxfam, 2015).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논쟁적 성격이 강하며, 학문적·이론적 전통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김진희, 2015; 박순용, 2020; Davies, 2006; Gaudelli, 2016; Sant, Davies, Pashby and Shultz, 2018). 기본 정신과 목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은 발전교육(또는 개발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반편견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간이해교육 등의 시민교육 영역과 그 내용이 상당히 중첩되면서, 때로는 이 유사 영역들과 정책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세계시민성 담론을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또는 탈식민주의의 관점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온 학계의 전통을 반영함과 동시에(김진희, 2015), 시민성 개념 자체가 지니는 논쟁적이고 다층적인 본질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Heater(2007)는 세계시민교육의 적용 방식을 크게 ‘약한’ 세계시민교육과 ‘강한’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²⁾ 미국 및 유럽사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Andreotti(2014)의 분류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을 연성적(soft)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critical) 세계시민교육으로 구분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통해 시민교육 관점에 내재한 핵심 가정과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Wintersteiner 외(Wintersteiner et al., 2015)의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하며, 세계시민교육을 개인적 코스모폴리타니즘(individual cosmopolitanism)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의 교육(the education of the global citizen)’과 구조적 코스모폴리타니즘(structural cosmopolitanism)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성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한 바 있다.

나장함 · 조대훈(2017)은 관련 학자들의 세계시민교육 관점 또는 접근방식 분류를 종합한 후, 우리나라 교육 정책 사업, 학교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등에 두드러지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관점을 <표 II-3>과 같이 여행자적 관점, 신자유주의적 관점, 인도주의적 관점, 비판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여행자적 관점’은 다른 나라의 사회 및 문화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시장 논리와 경쟁의 원칙하에 세계화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지식 습득과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은 인류애, 공감, 개발의 가치에 입각하며, 인류 공영의 차원에서 국가 간 기술 격차의 극복,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는 접근법이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관점’은 권력의 관점에서 세계 체제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불평등의 문제, 권력 관계, 소외, 정의,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 비판적 관점의 세계시민교육은 현재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변혁적 교육과 가장 근접한 시민교육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네 가지 관점은 현실 세계에서는 두 개 이상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교육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 ‘여행자적 관점’과

2) 히터(Heater, 2007)는 서구 시민교육의 역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약한’ 세계시민교육과 ‘강한’ 세계시민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약한’ 세계시민교육이란 국민국가의 시민들에게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수준의 시민교육을 의미하는데 반해, ‘강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 기능, 가치·태도 및 행동을 체계적으로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지칭한다. 히터의 분류를 적용할 때, 한국은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교사교육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을 채택하는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Ⅱ-3〉 세계시민교육의 네 가지 접근방식

관점	준거	문제의식	우선적인 핵심가치	세계시민교육의 목적
여행자적 관점		• 다른 나라의 사회, 문화 관련 지식의 부족	• 다양성 • 상호이해와 존중 • 상대성 • 공감	• 다른 사회/국가에 대한 지식 습득 •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의 태도 함양
신자유주의적 관점		•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 경쟁력 • 자유시장 주의 • 수월성 • 테크놀로지 • 글로벌 리더십	•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식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시민의 양성 • 경제적 번영
인도주의적 관점		• 국가 간 부(富)와 기술의 차이 심화 •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의 시급성 • 저개발/개발도상국가의 개발 역량과 기술 부족	• 인류애 • 개발/원조 • 배려 • 공존/공생 • 평화	• 타인/타집단을 배려하는 시민 양성 • 전 지구적 문제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이타적-박애주의적 시민 양성
비판적 관점		• 구조적-체제적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 • 서구중심적 세계관 • 권력 관계에 기인한 부정의	• 다원성 • 정의 • 임파워먼트 • 포용/관용	• 사회적, 정치적 구성물로서의 세계시민 개념의 이해 • 자국 및 타국의 정치-사회-문화 체제에 내재하는 권력 관계와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소수자 인권 보호

출처: 나장함 · 조대훈(2017: 907)

‘인도주의적 관점’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신자유주의 관점’과 ‘인도주의적 관점’이 병렬적으로 등장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 대한 이상의 검토 내용은 KOICA의 세계시민교육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질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KOICA의 비전과 추진 전략이 지향하는 세계시민의 모습은 무엇인가?
- KOICA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와 학습자들은 실제로 어떠한 시민에 해당하는가?(예: 여행자적 시민, 변혁적 시민)
- KOICA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시민/시민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3. 유럽의 세계시민교육 사업 동향

이 절에서는 개발교육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되고 있는 유럽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을 유추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확산 차원에서 운영해 온 개발교육과 이해증진프로그램(DEAR) 및 산하 기금 프로그램인 유럽 글로벌교육 네트워크(GENE) 및 유럽위원회 노스사우스센터(North 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프로그램, 그리고 유럽 국제개발 NGO 네트워크(European NGO Confeder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CONCORD), 영국의 Global Learning Programme(GLP)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 유럽연합 DEAR 프로그램

유럽연합의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프로젝트(DEAR) 프로그램은 1970년대 유럽 내 개발이슈에 대한 인지 제고를 위해 창설된 개발교육기금(Development Education Fund)이 유럽연합 출범 이후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https://dearprogramme.eu/>). 유럽연합의 국제 파트너십 부서(International Partnerships Directorate)가 운영하고 있는 DEAR는 사회-경제-환경 개발 관련 전 지구적 문제 및 쟁점들에 관한 협의 및 민주적 정치 참여 확대를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유럽 회원 국가의 관련 프로젝트(예: 지속가능한 소비, 기후변화, 빈곤 종식, 성평등, 청소년참여, 이주 문제, 세계시민교육 등)에 제공된 지원 금액은 연간 총 3천만 유로에 달한다. DEAR에는 시민사회단체, 유럽 회원국 및 산하 관련 기관, 지방정부, 학자 및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DEAR 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캠페인, 후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35,000여 명의 학교 교사들이 개발교육 및 시민교육 관련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받은 후 자신이 담당하는 교실에서 관련 시민교육 주제들(예: 기후변화, 이주 문제, 지속가능한 소비, 남북 무역, 식량 생산, 성평등)을 수업에 반영하였다(DEAR Infographic, 2021).

특히, SDGs가 수립된 이후에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낮은 국가에서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유럽연합 내 난민 문제에 대한 갈등이 확산 되자,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사업이 다수 진행되었다. 『2020년 DEAR 프로그램 사업성과보고서(EU DEAR Programme Briefing Package)』는 2016년과 2018년의 사업 공모상의 주요 항목별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비교 제시하고 있다.

〈표 II-4〉 DEAR 2016년 및 2018년 사업 공모 내용 비교

	2016 사업 공모 내용	2018 사업 공모 내용
전반적/글로벌 목표	• “개발교육을 함양하고 개발 및 협력 정책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한다.”	• “개발에 대해 유럽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럽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 패턴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우선적인 주제	• 1개 또는 그 이상의 SDG 목표 •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상호의존 • 이주, 기후변화, 성평등의 세 가지 주제 중 하나 이상	• 이주 • 기후변화 또는 광범위한 환경 문제 • 유럽연합의 근본 가치 • 성평등과 여성 임파워먼트
주요 참여 대상	• 다양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유럽시민	• 유럽연합국가의 15세-35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층
접근방식	• 글로벌 학습 방식(global learning) 및 캠페인-지지 활동 방식 (campaign-advocacy)을 통해 다양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 의사소통 및 공공 프로그램 (communication and public outreach), 권리 기반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 활용을 통해 전 유럽국가 시민들을 캠페인에 동참하게 하기
총 예산 규모	• 85,000,000 유로	• 77,000,000 유로
지원 사업 수	• 25개	• 10개

출처: DEAR Programme Briefing Package (2020: 8)

〈표 II-4〉에서 알 수 있듯이, DEAR의 강조점이 부분적으로 변화한 점을 알 수 있다. 우선적인 핵심 주제로 난민 문제들을 담은 이주(migration),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성평등을 필수 사업 주제로 설정하였으며, 개발교육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 주요 수혜/목표 대상을 청소년 및 청년층으로 좁힌 점도 눈에 띈다. 그리고 전체 사업 예산 및 지원 사업 규모는 축소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DEAR 사업성과보고서는 2019-2020년의 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주요 문제 및 쟁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제시하였다(EU DEAR Programme Briefing Package, 2020, p.9).

-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사업 참여 국가에서 DEAR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예산 및 정책 지원이 감소되었거나 향상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DEAR 사업 추진은 이전에 비해 EU의 재정 지원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민간 부분의 자금 조성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도 했다. 또한, DEAR 주요 참여자들은 EU의 다른 사업 기금, 예를 들어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의 지원을 활용하기도 했다.

- 사회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 특히 글로벌 학습 활동이 참가자의 사회 및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기능-동기부여 함양을 위한 교육 활동은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 및 시민활동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 정치인 또는 정책결정자보다는 공공부문의 하위 영역, 특히 지역사회 또는 교육기관 수준에서 DEAR 사업 활동에 대해 더 많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migration) 문제에 대한 인식 면에서 대중매체와 정치권은 종종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이주 현상, 이주민, 난민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하는 DEAR 프로그램에 심각한 도전 과제에 해당한다.
- SDGs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그 편차가 다양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개발 이슈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도가 낮은 국가에서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초점이 맞추어진 DEAR 활동은 다양한 관점들을 언론 분야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DEAR 프로그램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자체 사업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3개의 기금 사업으로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 'North 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그리고 'Presidency Project 2019-2020'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GENE과 North 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

유럽 글로벌교육 네트워크(GENE)는 2001년 설립된 유럽의 글로벌교육 협의체로서, 참여국가의 정책개발자들(policy makers) 간의 네트워크 성격을 띤다.

〈표 II -5〉 GENE 참가국 및 국별 기관(2021년 기준)

국가	GENE 참여 기관
그리스	•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Research and Religion
노르웨이	• The RORG network • UNA Norway
독일	•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Engagement Global
라트비아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룩셈부르크	•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리투아니아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Sport • Lithuanian Children and Youth Centre
몬테네그로	• Ministry of Education •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몰타	• Ministry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Promotion • Education Malta Foundation
벨기에	• FPS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Enabel - Belgian Development Agency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Ministry of Civil Affairs
불가리아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사이프러스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 and Youth
세르비아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스웨덴	• Swedish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스페인	• AECI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슬로바키아	• Slovak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of the Slovak Republic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Sport
슬로베니아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Sport
아일랜드	• Irish A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에스토니아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for Education and Research • Eston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영국	•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오스트리아	• ADA, Austrian Development Agency •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Research, Austria
이탈리아	• Italian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국가	GENE 참여 기관
체코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 Czech Development Agency
크로아티아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포르투갈	• Instituto Camões • Ministry of Education • CIDAC
폴란드	• Polish Ai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프랑스	•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 AFD - French Development Agency
핀란드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헝가리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 Ministry of Human Capacities

출처: GENE 홈페이지(<https://www.gene.eu/members>) 바탕으로 재구성(접속일: 2021.7.30.)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GENE은 정책 이슈에 기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별 국가 수준에서 파악된 핵심 쟁점들을 토대로 상향식 접근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전략 개발, 동료평가, 상호 학습 등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설립 당시 6개 회원국에서 출발하여, 2021년 기준 전체 회원국은 29개국으로 증가했다. 회원국 중 18개국은 DAC 회원국이다. 외교부, 원조 주관기관, 교육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교육 시행기관 등 총 50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이고, 연 2회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글로벌교육 정책 및 이행 현황에 관한 국가 보고서 및 요약 결과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수합 및 정리되어 『GENE 보고서(The State of Global Education in Europe)』로 발간된다. 예를 들어, 2019년 GENE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 교육과정 개혁에 반영된 글로벌교육
- 글로벌교육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및 국가별 부처 상호 간의 협력
- 글로벌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국가 수준의 전략
- 글로벌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글로벌교육 정책 평가와 학습 성과 평가
- 글로벌교육의 개념 정의 및 용어 문제
- 글로벌교육의 재정/예산 확보(funding) 동향 및 전략

2019 GENE 보고서는 최근 급부상한 극우폭력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그레타 툰베리 사례), 성평등(해시태그 미투 운동), 미디어상의 가짜뉴스 등의 핵심 쟁점들에 주목하면서, 다양성의 가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예: 공식 서류가 미비한 난민 인정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정책, 젠더 주류화 정책). 특히, GENE 보고서는 글로벌교육의 재정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재정 확보 동향(Funding trends)을 분석하는 장에서는 각 유럽 국가별로 개발 협력 예산(development co-operation budgets) 또는 ODA 예산과 연계된 재정 지원, 그리고 순수한 글로벌교육 관련 예산 지원의 동향 및 증감 현황을 비교표로 제시하고 분석하고 있다.

2)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1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럽평의회 노스사우스센터(이하 ‘노스사우스센터’)의 공식 명칭은 ‘글로벌 상호의존과 연대를 위한 유럽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Global Interdependence and Solidarity)’이다.

노스사우스센터의 설립 목적은 글로벌 상호의존이 요구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 존중,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결속이라는 유럽평의회 기본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연대 정책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The Council of Europe, 2019). 특히, 대화(dialogue), 파트너십(partnership), 연대(solidarity)의 3원칙에 기반한 노스사우스센터의 정책 사업들은 각 회원국의 정부기관, 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협력 관계에 기초한 참여를 이끌어낸다.

노스사우스센터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회, 워크숍,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며, 다양한 환경의 참여주체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노스사우스센터의 핵심 활동은 크게 ① 교육 활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상호의존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쟁점들에 대한 인식 함양 사업, 그리고 ②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 및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대화를 통해 유럽평의회의 목표와 원칙에 부응하는 북남 연대 정책의 개발 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스사우스센터의 핵심 프로젝트는 ‘글로벌교육 지침서(Global Education Guidelines)’라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제3판이 업데이트된 글로벌교육 지침서는 글로벌교육의 최신 정보 및 교사교육 방법들을 소개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글로벌교육 실행 도구를 제공한다.



[그림 II-1] 글로벌교육 지침서의 글로벌교육 개념도

출처: The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2019: 20)

[그림 II-1]에서 알 수 있듯이, 노스사우스센터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 지침서는 변혁적 학습 과정(a transformative learning process)을 통해 글로벌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의 관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The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19:19). 동 지침서가 제시한 변혁적 학습의 네 가지 주요 단계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 네 단계들은 공통적으로 문제 상황 분석(problem analysis)과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을 반영하고 있다.

- 현 세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비판
- 지배적 교육 모델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 가지는 비전
- 민주적 문화를 육성하는 역량군의 개발
- 책임 있는 세계시민성을 지향하는 변화의 과정

글로벌교육이 이 같은 변혁적 학습의 단계와 성공적으로 결합될 때 세계시민성의 교육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을 동 보고서는 주장한다.

나. 구호 및 개발을 위한 유럽 NGO 연합(CONCORD)

구호 및 개발을 위한 유럽 NGO 연합(European NGO Confeder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이하 ‘CONCORD’)은 2018년 기준으로 유럽 전역의 2,600여 개의 NGO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며, 21개의 하위 네트워크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CONCORD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DEAR 프로그램과 교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CONCORD는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Europe: How Much Do We Care?』라는 세계시민교육 보고서를 발간하였다(CONCORD, 2018). 동 보고서는 국가별로 세계시민교육 용어의 다양성에 유의하면서(예: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세계시민교육), 주로 개별 국가 단위에서 구호 및 개발 NGO에 대한 재정 지원의 흐름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개별 국가 보고서의 주요 공통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간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용어 사용 분석
- 국가의 공식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교사교육, 교실수업)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이행 동향
- 각 국가별 세계시민교육 관련 예산 배정 동향
- 세계시민교육의 이해당사자 및 주요 주체
- 시사점 분석 및 향후 과제 제안

CONCORD의 2018년 유럽 세계시민교육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국가별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용어상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관련 기관/조직의 유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DE),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GE),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의 네 가지 용어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부 및 산하 기관은 ESD와 GE를 글로벌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의 상위 개념 범주로 간주하는 반면, 외교부와 개발원조기구(development aid agencies)는 DE를 상위 개념 범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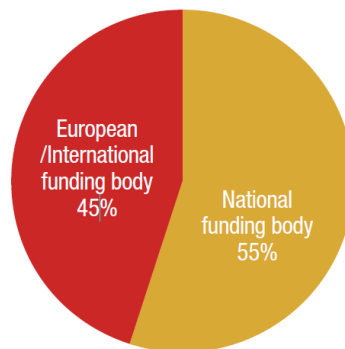
둘째, 공식적 교육과정 수준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접목되는 현황은 다양했으며, 시민교육 과목, 사회, 역사, 정치, 지리, 윤리 등 개별 교과 내에서 GE/GCE를 결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예: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그 밖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학제적 접근(cross-

curricular approach)을 취하면서, 여러 교과 간의 통합 방식으로 GE/GCE를 반영하고 있었다(예: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셋째, 교사교육의 영역에서, 일부 국가는 GE/GCE 요소를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었지만(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그리스, 라트비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E/GCE가 국가 교사교육 시스템 또는 NGO 주관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였다.

넷째, 국가 교육 정책 영역에서, 이탈리아, 핀란드, 불가리아 등의 일부 국가는 교육과정 개혁을 GE/GCE의 주류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교육부는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Competences and Learning Environments(for 2014–2020)’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섯째, 세계시민교육 관련 예산 확보(funding) 동향(2011–2015)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외교부 또는 개발지원기구가 세계시민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일부 국가(예: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에서는 교육부 또는 교육 관련 기관이 예산을 제공하고 있었다.³⁾ 국가별로 GE/GCE 관련 예산의 증감폭은 상달하였다.



[그림 II-2] 세계시민교육 관련 NGO 예산 지원 기구

출처: CONCORD(2018: 22)

3) 동 보고서는 각 국가별 세계시민교육 관련 용어의 다양성, 상이한 예산 시스템, 원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해 각 국가별 예산 지원 동향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경우(예: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국가 기관이 GE/GCE에 배정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서, 다른 공인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를 대신 사용하였다.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할 경우, 벨기에와 스웨덴은 각각 11%, 2% 감소 된 반면, 덴마크와 독일은 각각 77%, 10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위 [그림 II-2]에서 볼 수 있듯이, 동 보고서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NGO 예산 지원 기구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된 22개 국가 중 12개 국가(= 55%)에서 국가 기관이 NGO 예산의 주된 지원 기관이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10개 국가(= 45%)는 그 밖의 국제기구를 주된 예산 지원 출처로 지목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여섯째, 동 보고서의 NGO 단체 설문조사 결과, GE/GCE의 주요 이해당사자 또는 참여주체로서(main stakeholder) 정부 산하 기관, NGOs, 국제기구/조직, 교육 및 연구 기관, 미디어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국제기구(예: UN, UNESCO, GENE, CONCO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 의제 설정 및 지역적-국제적 우선사항 설정
- 공통의 의사소통 플랫폼의 개발
- 역량 강화
- 관련 문서 자료 및 자원 개발
-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국가 시스템 및 파트너십 창출(예: GENE Increase Program)

4.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

이하에서는 당면한 지구촌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 세 곳—UN SDG Action Campaign, the World's Largest Lessons, 그리고 Mission 4.7—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UN SDG Action Campaign

UN SDG Action Campaign은 유엔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SDGs에 따라 행동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목표 달성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된 이니셔티브이다. 창의적이고 강력한 SDGs 활동과 소통을 통해 시민 사회, 국가 및 지역 정부, 싱크 탱크, 예술과 문화,

미디어와 업계의 사상가와 행동가를 연결함으로써 유엔과 유엔 가입국을 지원한다. 그리고 SDGs의 메시지를 재고하고, 행동을 요구하고, 정책 결정의 방향을 바꾸며, 개인을 집결시킨다. 맞춤형 옹호 활동과 소통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책 결정자들이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추진력을 높인다.⁴⁾

SDG Action Campaign 2016-2017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액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그리고 SDGs 도구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 차원의 SDGs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SDGs 실행 및 인식 계획을 수립하는 등 SDGs 캠페인을 촉진한다. 2017년 기준으로 총 53개국에서 유엔 국가팀, 정부, 시민 사회와 민간사회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개인, 시민 사회 기관, 지역 정부 등을 대상으로 SDGs 달성을 위해 행동하는 전 세계의 훌륭한 혁신가, 스토리텔러, 전달자 등을 선정하여 UN SDG Action Award를 수여한다. 이외에도 포토 내러티브(photo-narrative) 시리즈인 Humans of MY WORLD를 통해 SDGs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2014년 이후 50개국 이상에서 1,000건 이상의 이야기들을 선정하고 소개하였고,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온·오프라인 전시와 캠페인 그리고 행사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5년도부터 SDGs 달성을 위한 공감과 행동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고취하기 위해 유엔 가상현실(United Nations Virtual Reality, UNVR) 이니셔티브 아래 5건의 영상을 만들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관람하였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SDGs 메시지를 확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을 유도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관련 활동으로는 강원도 평창 초등학교에서 100명의 학생과 SDGs 축구공을 통해 SDGs와 올림픽 정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⁵⁾

나. The World's Largest Lessons

The World's Largest Lessons(이하 'WLL')은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가진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SDGs를 소개하고, 가장 긴급한 사회, 경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자 한다(The World's Largest

4) United Nations SDG Action Campaign(<https://www.sdgactioncampaign.org/>)(검색일: 2021. 10.30.)

5) 100 PRIMARY SCHOOL CHILDREN JOIN SDG ADVOCATE TEAM TO KICK SDGS INTO ACTION AT THE OLYMPICS (2018.2.16.) <https://www2.sdgactioncampaign.org/2018/02/16/sdgadvocates-education-olympics/>(검색일: 2021.10.30.)

Lessons, 2019).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캠페인과 과제를 개발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활동가들을 지원한다.⁶⁾매년 참여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8-2019년도에는 367개의 학교에서 45,6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The World's Largest Lessons, 2019).

WLL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SDGs 메시지를 어린이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가난과 사회 불평등, 기후변화가 추상적이거나 그들과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선정한 주제들에 관해 토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과 제안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교사와 학생에게 주제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제공한다. 자료는 다양한 연령 그룹별에 맞게 세부 교안, 활동지, 포스터, 비디오 등을 포함하고, 공교육 기준의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과정 내에 확장하고 강화하고자 한다(The World's Largest Lessons, 2019). 국내에서는 협력기관인 유니세프의 한국위원회에서 아동권리교육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WLL을 소개하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와 가이드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⁷⁾

다. Mission 4.7

Mission 4.7은 SDG 4.7 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기문 세계시민교육센터, 유네스코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의 지속가능발전센터(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의 파트너십 하에 Global Schools와 the SDG Academy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2020년 바티칸 청년 심포지엄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⁸⁾ 더욱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는 기술적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세계시민교육, 환경 교육, 평화 및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는 SDG 4.7 목표를

6) The World's Largest Lessons(<https://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검색일: 2021. 10.30.)

7) 유니세프(<https://www.unicef.or.kr/what-we-do/advocacy-for-children/child-rights-education/>)(검색일: 2021.10.31.)

8) Mission 4.7 launches at the 2020 Vatican Youth Symposium (2020.12.18.)
<https://www.mission4point7.org/news/mission-47-launches-at-the-2020-vatican-youth-symposium>(검색일: 2021.10.30.)

전 세계의 변혁적인 교육의 시행을 가속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 사회, 업계 지도자들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한다. 협력기관들의 교육, 옹호 활동, 연구들을 소개하며 개인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의 등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SDG 4.7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⁹⁾

UN SDG Action Campaign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라오스, 베트남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해당 기관의 축제나 행사, 캠페인에 대한 소개나 참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WLL의 경우에도 협력기관인 유니세프에서 일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며, Mission 4.7 관련해서도 한국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KOICA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들을 지원한다면,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KOICA 세계시민교육 무대를 국외로 확대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 관련 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통해 국민을 세계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유럽 및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의 개요를 정리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요 국제사회 프로그램 내용 비교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내용
유럽연합 DEAR 프로그램	• 사회-경제-환경 개발 관련 전 지구적 문제 및 쟁점들에 관한 협의 및 민주적 정치 참여 확대를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예: 지속가능한 소비, 기후변화, 빈곤 종식, 성평등, 청소년참여, 이주 문제, 세계시민교육)를 지원함 • 참여주체로는 유럽 회원국 및 산하 기관,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학자, 전문가 그룹 등이 포함됨 • 최근, 청소년 및 청년 대상 SDGs 인지 제고 사업, 유럽연합 내 난민 문제 및 수용 관련 인식 제고 사업을 중점 수행함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	• 2001년 설립된 유럽 글로벌교육협의체로서, 회원국 정책개발자 네트워크 성격이 강하며, 이로 인해 사업 내용은 정책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연 2회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개별 국가 수준에서 파악된 핵심 쟁점들을 토대로 상향식 접근을 통해 정책 연구, 전략 개발, 동료평가, 상호 학습 등을 공동으로 실시함 • 최근 급부상한 극우폭력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 성평등, 미디어상의 가짜뉴스 등의 핵심 쟁점들에 주목하면서, 다양성의 가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소개함

9) Misson 4.7(<https://www.mission4point7.org/>)(검색일: 2021.10.30.)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내용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 21개 유럽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럽평의회 노스사우스센터는 글로벌 상호의존이 요구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 존중,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결속을 위한 유럽평의회 연대 정책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함 • 핵심 활동은 크게 1) 교육 활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상호의존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쟁점들에 대한 인식 함양 사업, 그리고 2)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 및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대화를 통해 유럽평의회 목표와 원칙에 부응하는 북남 연대 정책의 개발 사업 • ‘글로벌교육지침서(global education guidelines)’ 발간을 통해, 변혁적 학습과정을 강조하며, 글로벌교육 최신 정보, 실행도구, 교사교육 방법들을 소개함
CONCORD	•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CONCORD는 유럽 내 2,600여 NGOs, 21개 하위 네트워크 단체로 구성됨(2018년 기준)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Europe: How Much Do We Care?’라는 세계시민교육 보고서는 국가별로 세계시민교육 용어의 다양성에 유의하면서(예: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세계시민교육), 주로 개별 국가 단위에서 구조 및 개발 NGO에 대한 재정 지원의 흐름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UN SDG Action Campaign	•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SDGs에 따라 행동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목표 달성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시민 사회, 국가 및 지역 정부, 싱크 탱크, 예술과 문화, 미디어와 업계의 사상가와 행동가를 연결함으로써 유엔 및 유엔 회원국을 지원함 • 매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액션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SDGs 도구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 차원의 SDGs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SDGs 실행 및 인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SDGs 캠페인 촉진 활동을 수행하고, SDGs 메시지 확산 및 목표 달성 행동을 유도함(예: UN SDG Action Award, 포토내러티브 시리즈 ‘Humans of My World’, 유엔 가상현실 이니셔티브 등)
The World's Largest Lessons	•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가진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전 세계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SDGs를 소개하고, 가장 긴급한 사회, 경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함 • 주요 추진 과제로서 SDGs 메시지를 어린이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 교사와 학생에게 주제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이 있으며(예: 다양한 연령 그룹별 세부 교안, 활동지, 포스터, 비디오 개발 및 제공), 이를 통해 공교육기존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Mission 4.7	• SDG 4.7 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기문 세계시민교육센터, UNESCO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의 지속가능발전센터(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의 파트너십 하에 Global Schools와 the SDG Academy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세계시민교육, 환경 교육, 평화 및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는 SDG 4.7 목표를 전 세계의 변혁적인 교육의 시행을 가속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 사회, 업계 지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Ⅲ. 주요국 공여기관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공여기관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는 18개 OECD DAC 유럽 회원국 중 2019년 기준 ODA/GNI 비율이 한국을 상회하는 덴마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및 비유럽 DAC 회원국인 캐나다의 사례를 중점 검토하여 KOIC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덴마크

덴마크는 Denmark's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ion¹⁰⁾ (2017)을 통해 덴마크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안보와 개발, 이민과 개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개발, 자유와 개발 등 총 4가지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덴마크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를 이행하고자 덴마크 원조기관인 DANIDA는 중점협력국가(priority countries) 내 시민사회 단체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DANIDA는 총 예산의 최소 2%를 현지 수혜자 교육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동 예산을 통해 수원국 내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DANIDA는 KOICA ODA교육원이 추진 중이 세계시민교육 혁신공모사업과 유사한 시민단체 대상 공모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대표적인 공모사업은 The World's Largest Lessons의 덴마크 버전이라 할 수 있는 Verdenstimen(The World Class)¹¹⁾ 이니셔티브로, Verdenstimen은 2019년 8월부터 덴마크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덴마크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SDGs 교육을 시행하고 과학, 사회, 물리, 덴마크어 등 교과 수업에서 SDGs를 교육할 수업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10) amg.um.dk/en/policies-and-strategies/policy-for-support-to-danish-civil-society/
(검색일: 2021.10.28)

11) <https://www.verdensmaal.org/>(검색일: 2021.11.01)



[그림 III-1] The World Class 주최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진(2020)

출처: Verdenstimen 홈페이지(<https://www.verdensmaal.org/>)(접속일: 2021.11.02.)

2. 독일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해 왔다. BMZ은 2014년 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Strategy on Government-Civil Society Cooperation in Post-2015 Development Policy)¹²⁾을 발표하였는데, 동 문서에서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있어 투명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 인권 기반의 접근법, 책무성, 혁신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며, 독일 내 시민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참여는 물론, 독일 시민사회를 통한 수혜국 내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BMZ은 독일 시민사회단체인 Engagement Global(EG)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하며, EG를 통해 실시되는 사업은 네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민단체 대상 공모사업이다. BMZ은 개별 시민사회단체가 공모한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EC와 함께 선정, 지원한다. 2017년까지는 개발협력, 식량안보, 사회재건(난민 등), 사회구조(교육 등) 4개의 주제로 사업을 공모하였고, 2020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주와 난민, 기후와 환경, 고용과 훈련, 귀국자를 위한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이 신규 주제로 포함되었다. 두 번째는 수원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세계시민교육 사업으로 분쟁취약국 시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명은 ZFD (Civil Peace Service)로 개발협력과 평화의 연계(Development-Peace Nexus)를 위해

12) bmz.de/de/themen/krisenpraevention/zivilgesellschaft/index.html (검색일: 2021.10.28)

독일의 9개 시민사회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분쟁취약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세부 주제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는 영국의 Connecting Classroom 사업과 유사하게 학교 간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시민성 함양을 도모하는 ENSA(Development School Exchange)¹³⁾ 사업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케냐, 세네갈, 남아공, 브라질, 페루 등의 수원국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국민의 개발협력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개발협력분야 종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BMZ은 우리나라의 KCOC와 같은 독일의 국제개발NGO연합인 VENRO¹⁴⁾(Verband Entwicklungspolitik und Humanitäre Hilfe)를 통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한다. VENRO는 199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약 140개의 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VENRO는 개발교육 및 시민사회 옹호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AGP(Action Group Program), FEB(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및 BNE(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tE(Education meets Development) 등 대국민 개발 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 스위스

스위스의 공여기관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역시 시민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이행 중이다. SDC 내 시민사회 협력 담당 부서인 IP(Institutional Partnerships Division)¹⁵⁾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대국민 인식 사업을 수행 중이다.

SDC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해온 education21 foundation, alliance sud 등 국내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수과정 운영을 지원해왔다. 일례로, SDC 지원으로 운영 중인 Project Humanity는 스위스 청소년 대상 인도적 지원 단기 교육과정으로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을 소개하고,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 등을 5개 세부 수업모듈을 통해 교육한다.

13) <https://www.engagement-global.de/homepage.html> (검색일: 2021.11.01)

14) <https://venro.org/english/who-we-are>(검색일: 2021.10.28)

15) eda.admin.ch/deza/en/home/publications-services/information-instructors-trainees/information-teachers.html(검색일: 2021.10.28)

이를 위해 전문강사가 교육을 신청한 스위스 초중등학교에 파견되어 수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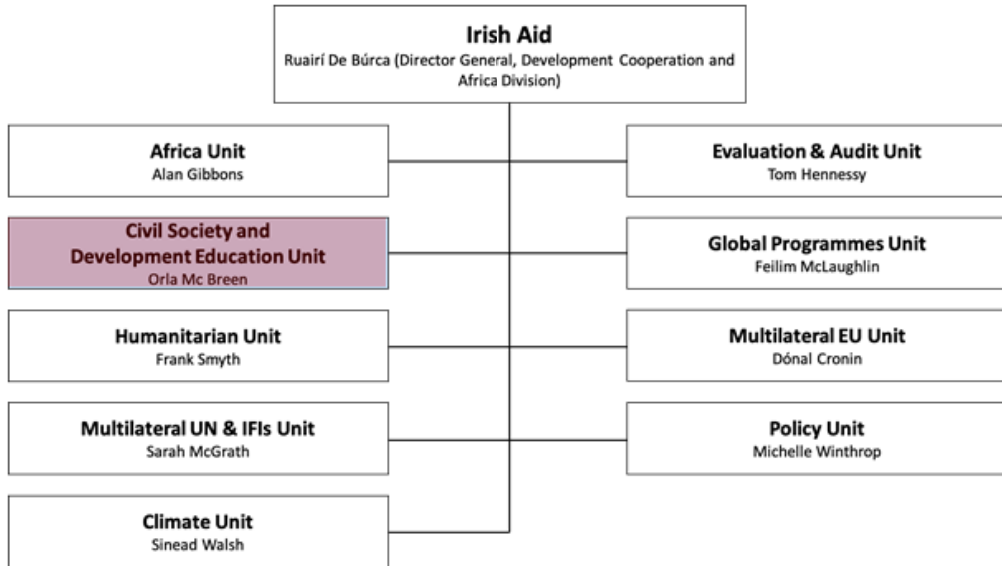
CONCEPT	MODULES	GALLERY	JOIN
HUMANITY CAN BE LEARNED. The principles of humanity, impartiality, neutrality and independence underpin all humanitarian missions worldwide. Students benefit in every respect from the deeper examination of the Humanitarian Principles as part of this school project: ▪ they discover the importance and the function of the Humanitarian Principles ▪ they 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Humanitarian Principles for people in need ▪ they learn how humanitarian aid works ▪ they relate what they have learned to themselves and their own values ▪ they develop a personal opinion and are able to present and defend it			

[그림 Ⅲ-2] Humanity Project Concept 소개자료

출처: Humanity Project 홈페이지(<https://www.project-humanity.info/en.html>)
(접속일: 2021.10.28.)

4.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개발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해 온 대표적인 공여국으로,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아일랜드와 핀란드의 개발교육을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OECD, 2012). 2011년 발간된 아일랜드 원조 종합보고서(Irish Aid Synthesis Report)에서 개발교육과 아일랜드 상위 외교 정책과의 통합을 권고한 이후 2012년부터 상위 정책과의 일관성이 명시되었다. 『Irish Aid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2017-2023』에서도 아일랜드 외교정책의 지향점인 더 공평한, 더 정의로운, 더 안전한,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일랜드의 개발교육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Irish Aid 내 개발교육 담당부서는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Education Unit이다([그림 Ⅲ-3] 참조).



[그림 Ⅲ-3] Irish Aid 조직도

출처: Irish Aid 홈페이지(<https://www.irishaid.ie/about-us/our-organisation/our-structure/>)
(접속일: 2021.08.12.)

비록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고수해 온 개발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역적 이슈와 전 지구적 이슈를 비판적으로 연결하고, 전 세계적인 권력의 불평등에 도전하며, 평등, 다양성, 지속 가능성, 인권,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구상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개발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고생 대상



초등학생 대상

[그림 Ⅲ-4] Irish Aid Centre 워크숍 진행사진

출처: Irish Aid 홈페이지(<https://www.irishaid.ie/teaching-and-learning/schools-workshops/>)
(접속일: 2021.08.12.)

현재까지 아일랜드 초등학교의 37%, 중고등학교의 61%가 Irish Aid 개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특히 15,000여명의 초중고생들은 2008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설립된 Irish Aid Centre를 방문하여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Irish Aid는 초중고 교사 총 3,474명에게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했고, 특히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여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만여 명 이상의 예비교사가 연수를 완료하였다.

Sector or sectors where the DE event/course/initiative took place:					
County or counties where the DE event/course/initiative took place:		Number of learners:			

Please identify your age group from the options below by ticking the appropriate box					
0-14	15-25	26-44	45-64	65+	
Please identify your gender by ticking the appropriate box		Male	Female	Other	

1. Please insert a question, relevant to your course/intervention which asks participants to rate, on a scale of 0 – 5, their knowledge of the topic PRIOR TO THE COURSE/INTERVENTION					
0	1	2	3	4	5

**0 being 'did not know about it' and 5 being 'knew a great deal about it'*

2. Please insert a question, relevant to your course/intervention which asks participants to rate, on a scale of 0 – 5, their knowledge of the topic AFTER COMPLETING THE COURSE/INTERVENTION					
0	1	2	3	4	5

**0 being 'did not know about it' and 5 being 'knew a great deal about it'*

If relevant to an intervention:

3. Please insert a question, relevant to your course/intervention which asks participants to identify any SKILLS learned or improved on, AS A RESULT OF COMPLETING THE COURSE/INTERVENTION. ²⁰					
0	1	2	3	4	5

**0 being 'No' and 5 being 'Yes, I am able to give a lot of reasons'*

4. Please insert a question, relevant to your course/intervention which asks participants to rate, on a scale of 0 – 5, IF THEY HAVE BEEN ABLE TO CRITICALLY ASSESS WHAT THEY HAVE LEARNED ABOUT GLOBAL ISSUES AND RELATE IT TO THEIR OWN LIFE. ²¹					
0	1	2	3	4	5

0 = no connection/relevance *5 = substantial connections made*

5. Please insert a question, relevant to your course/intervention, which asks participants to GIVE EXAMPLES OF HOW THE DE COURSE/INTERVENTION HAS INFLUENCED THEIR ATTITUDE OR BEHAVIOUR. SAMPLES HAVE BEEN SUGGESTED BELOW. PLEASE FEEL FREE TO AMEND THIS LIST ACCORDING TO THE ACTIVITIES OF YOUR ORGANISATION.					
☐ I will buy Fairtrade products in future ☐ I am more aware of m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 global citizen ☐ I think I can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 I intend to volunteer in my community/in the global south/etc. ☐ I would like to pursue a career in development[organisations can add or deduct from this list as appropriate]					

[그림 Ⅲ-5] Irish Aid: 세계시민성 리터러시 향상도 평가문항

출처: Irish Aid (2017b: 11)

Irish Aid는 특히 대학교와의 협력을 활발히 해왔으며, 아일랜드 내 총 26개 대학 중 23개 대학이 Irish Aid의 지원으로 개발교육 수업을 개발하거나, 기존 수업에 개발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 중이다. 또한 Irish Aid는 아일랜드 개발교육협의체(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IDEA) 등 아일랜드 개발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http://developmenteducation.ie>)에 예산을 지원한다.

Irish Aid의 경우, 개발교육의 성과지표로 개발교육 활동에 참여한 전국 초중등학교의 수 및 지역별 참여 학교 비율, 참여 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수, 지역별 참여 평생교육기관의 비율 및 성인 참가자 수를 활용하고 있다 (Irish Aid 2019). 또한 개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세계시민성 리터러시 향상 여부 및 교육 참가 이후 태도 및 행동의 변화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응답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ibid.).

Irish Aid는 개발교육 전략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자 별도의 성과평가프레임워크(Performance Measure Framework)를 개발했으며, 매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현재 개발교육 전략에 대한 중간 이행 평가가 2020년 실시되어 결과가 공개되었으며, 2023년 초에는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Irish Aid, 2017a).

5. 영국

1960년대부터 Oxfam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던 영국의 개발교육은 이후 1997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 하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글로벌교육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¹⁶⁾는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장 및 교사, 교육청 관계자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글로벌 차원의 개발(Developing the Global Dimension in the School Curriculum)’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며,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p.119). 이후 영국은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지원 프로그램인 Global Learning Program (GLP)을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운영하였다. GLP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 교육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특히 잉글랜드 프로그램(GLP-E)은 여러 협력기관(예: Pearson, UCL Institute of Education, Oxfam UK, Think Global, Royal

16) 영국 정부는 2020년 9월 국제개발부(DFID)와 외교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를 외무·국제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FCDO)로 통합하였다.

Geographical Society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7,800여개 이상의 단위학교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지식, 기능, 가치 및 참여-실천 목표 함양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GLP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가 상호의존성, 개발, 세계화, 지속가능성 개념과 친숙해지도록 돕는다.
- 교사와 학생이 동정-연민이나 자선을 베푼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정의의 실현한다는 자세를 지니도록 돕는다.
- 단위학교 전체 및 개별 학생 수준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
- 학교가 빈곤과 지속가능성의 이슈에 대해 더 잘 인지하도록 돕는다.
- 학교가 교실 안에서 개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적 모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GLP의 목적과 관련하여 중등학교에서 강조하는 지식의 내용은 14가지의 주제로 구성된다: 빈곤에 대한 생각, 글로벌 빈곤, 국가 개발, 개발에 대한 생각, 인권, 불평등, 지속가능성, 상호의존성, 나와 의 연관성, 왜 글로벌 빈곤이 발생하는가, 개발의 도전과제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행동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GLP는 이러한 학습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것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무엇이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 그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그것은 나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의 순서를 적용하여 지식 내용을 다룰 것을 제안한다. 개발된 학습주제별 교수학습 자료들은 여성의 날(3월 8일),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 등 특정한 계기에 수업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수학, 지리, 영어, 역사 등 주요 교과수업 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GLP 사업이 지니는 두드러진 접근 전략 두 가지는, 첫째, 학교전체적 접근(a whole school approach)과 이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강조, 둘째, (환류시스템을 통한) 평가 체제 강조이다. 첫 번째 특징은 세계시민교육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 차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GLP는 학교장이 학교 단위로 GL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GLP 전학교적 감사(GLP Whole School Audit)’도구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GLP 자체감사를 통해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가 지니는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의 장점을 확인하고, 평가

기준별로 역점을 두어 개발해야 할 영역을 확인하게 된다. 전학교적 자체감사가 종료되면, 해당 결과보고서는 단위학교의 ‘GLP 학교 실행계획(GLP School Action Plan)’이 된다. 자체 실행계획 수행 단계에서 GLP 온라인 플랫폼은 글로벌학습에 필요한 관련 문서, 안내 자료, 교수학습자료 및 GLP 가입 학교 네트워크와의 소통 등 다양한 GLP 학습도구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장의 리더십 하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학교는 지역별 교사 연수를 담당하는 GLP Expert Centres로 지정되어, 각 센터별로 15~23개 내외의 파트너 학교 교사들의 연수를 담당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둘째, GLP의 두 번째 특징은 평가에 대한 강조이다. GLP는 단위학교 수준의 자체평가의 요소를 강조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는 학생 평가도 강조하고 있다. 학생 평가를 위해서 GLP는 학생 평가틀을 개발하였고, 학생평가의 대상 영역은 위에서 소개한 14가지 지식-학습주제들을 중심으로 각 주요 영역마다 초·중등학생의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향상 단계 및 성취 수준을 명시한다. 지식의 영역과 함께 기능 및 가치·태도의 영역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추가하였다.

GLP는 총 사업비 2,100만 파운드(약 300억 원)로 10,914개 공립 및 사립학교¹⁷⁾ 내 55,386명의 교사들이 참여해왔으나, 사업 초기 수립한 성과지표(전국 초중등학교 수의 50% 이상 참여)를 달성하지 못해, 2017년 3월 영국 의회는 GLP 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 동 사업은 2018년 7월 종료되었다.

이후 GLP 사업의 기본 목표와 후속 과제는 ‘Connecting Classrooms through Global Learning(이하 ‘Connecting Classrooms’)’ 프로그램으로 계승되었다. Connecting Classrooms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빅이슈(big issues)를 교수학습의 구심점으로 삼아 영국 및 전 세계 협력학교를 연결 짓는 글로벌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자 온라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구촌의 주요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고, 이를 통해 자국 및 지구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본 프로그램은 영국 및 전 세계 40여 개국 참여학교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원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참여학교 중에서 자매학교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17) 지역별 참가학교 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잉글랜드 7881개(7,612개 공립학교, 269개 사립학교) (공립학교의 30%), 웨일스 883개 공립학교(50%), 북아일랜드 535개(51%), 스코틀랜드 1,615개 (63%) (DFID, 2019)

제공한다(홈페이지 주소: <https://connecting-classrooms.britishcouncil.org/>). 현재 진행 중인 4단계(2018-2021)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약 3,800만 파운드로 국내 및 수원국 사업비는 FCDO가 지원하고,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영국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표 Ⅲ-1〉 Connecting Classrooms 참여 수원국 현황(2021년 기준)

지역	참여국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6개국)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공,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시아(5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중동 및 북아프리카 (8개국)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튀니지, 예멘

출처: 영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s://connecting-classrooms.britishcouncil.org/>)(접속일: 2021.09.14.)

글로벌학습 자원은 가정학습활동자료(home learning activities), 글로벌학습 시작하기(Get started with global learning), 글로벌학습 자원(global learning resources), 기타 추가 자원(additional resources)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 및 제공된다.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s)의 경우, 개별 교사의 준비도 또는 수준에 따라 입문코스, 중급코스, 상급코스로 구분하여 온라인 연수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참여학교 중 자매학교를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는 국제협력 온라인 가이드를 아래 다섯 가지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 1단계: 자매-교류학교 탐색 전
- 2단계: 단기 교류-협력 관계 지원의 의미
- 3단계: 자매-교류학교 찾기
- 4단계: 자매-교류 관계 구축하기
- 5단계: 자매-교류 관계 지속하기

출처: <https://connecting-classrooms.britishcouncil.org/partner-with-schools>

동 사업에 참여 중인 네팔의 경우, 총 493개 초중고가 글로벌교육과정을 도입, 400명의 학교장 및 1,100명의 교사가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케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2016년 영국 DFID의 예산 지원으로 정책자문가가 파견되었고 △비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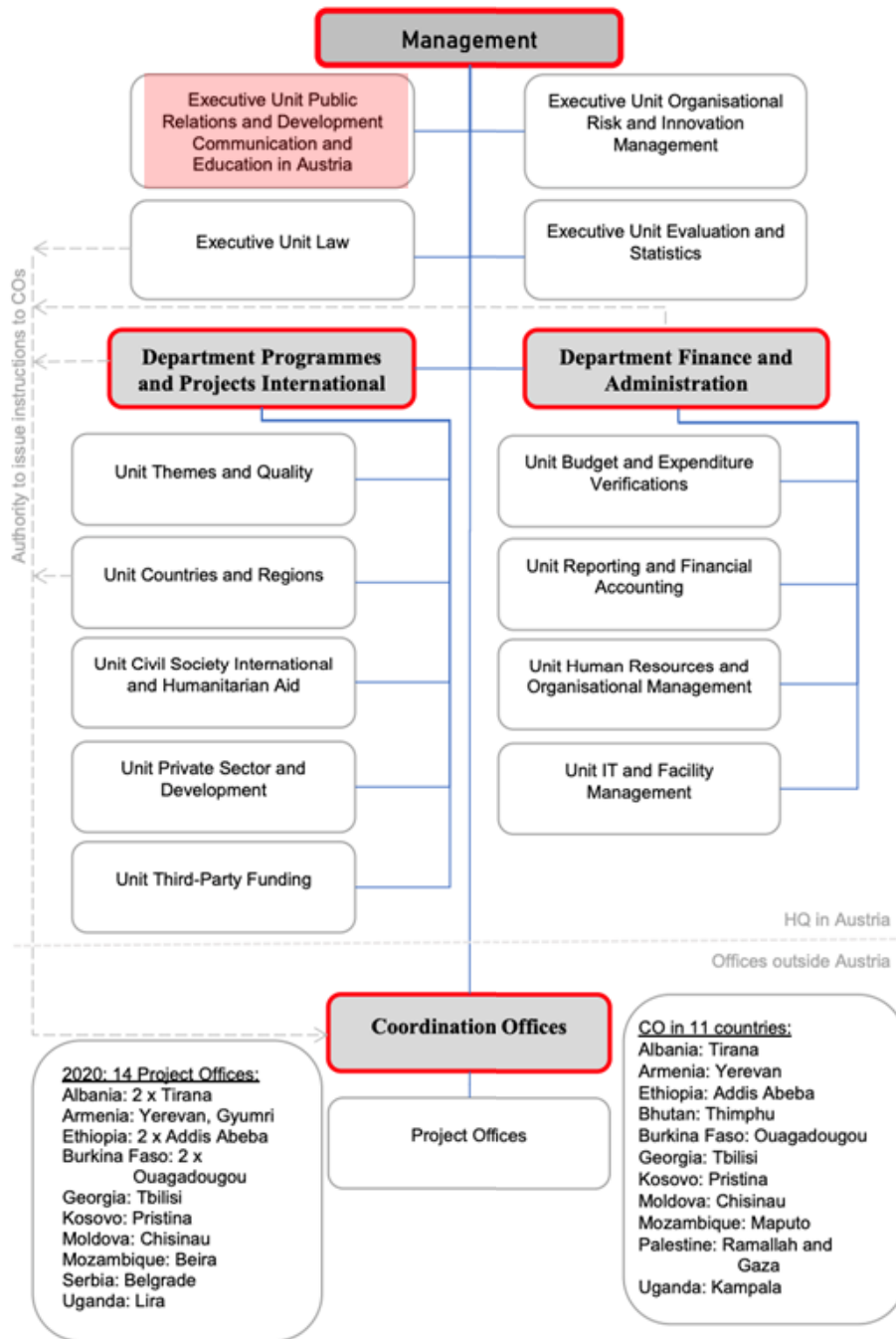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과 상상력,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소통과 협력을 테마로 교사교육가 훈련(Training of Trainers, ToT)이 진행되어 총 47개 지역 중 31개 지역의 2,800명의 교장 및 교사가 직무연수를 받았다.

6. 오스트리아

다음은 오스트리아 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의 사례이다. ADA는 2003년 글로벌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그룹(Global Learning Strategy Group)을 구성하여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교육대학 등 관계기관과 컨퍼런스 개최, 지침서 및 교육자료 개발, 교사교육가 연수(ToT) 등을 통해 글로벌교육을 확산해왔다.

ADA는 세계시민교육의 증진 및 확산, 오스트리아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학제간 컨퍼런스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략 그룹 확대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대학 네트워크의 발전을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수립된 2021년 세계시민교육 사업계획에 따르면, ADA는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 대상은 교사 15,000명(전국 교사의 10%에 해당), 언론인 2,500명, 450개 유관 시민단체 관계자, 청소년 사회복지사 100명, 대학교 강사 300명, 학생 300명, 기타 교육관계자 1,200명으로 157만 유로(약 2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3,000권 이상의 글로벌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갖춘 지역 도서관 6개를 확보하고, 오스트리아 연방 7개 주에서 연 155강 이상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수 및 훈련을 운영하며, 세계의 의존성을 주제로 한 전시회 연14회 및 월 2회 이상의 관련 행사 개최 중이다. 이 외에도 2012년부터 클라겐푸르트 대학교(University of Klagenfurt) 내 세계시민교육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7만 7천 유로(약 3억 6천만 원) 규모로 매년 25~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다.

ADA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세계시민교육 지원 계획(Global Citizenship Education-Support Transformation)을 홈페이지를 발표하며 담당 부서는 Executive Unit Public Relations and Development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 Austria이다([그림 Ⅲ-6] 참조).



[그림 Ⅲ-6] Austria Development Agency(ADA) 조직도

출처: ADA 홈페이지(https://www.entwicklung.at/fileadmin/user_upload/Dokumente/Organigramme/Organigramm_de_en.pdf) (접속일: 2021.08.12.)

7. 프랑스

프랑스 원조청¹⁸⁾(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은 2009년부터 개발교육을 통해 유엔 개발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자 프랑스 시민단체와 함께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Solidarity(ECIS) 이니셔티브¹⁹⁾를 발표, 이행 중이다.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50개 시민단체 기관과 함께 총 10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2019년 사업 수혜자는 5백만 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19년부터 이행 중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개국에서 추진된 The Solidarity Festival, Together for the SDGs라는 사업으로 매해 11월 2주간 중앙 및 지방정부, 초중고 학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최한다.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수는 매년 최소 33만 명 이상으로 이들은 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AFD는 2017년 프랑스 세계시민교육 자문그룹(French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on GCE)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동 그룹에는 외교부, 교육청·소년스포츠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 및 파리지 등 지방정부, 교육단체 등 4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프랑스 내 주요 세계시민교육 이행기관 및 담당자 간의 교류를 정례화해왔다.

특히 AFD 산하 교육 및 연수기관으로 마르세유에 위치한 AFD Campus²⁰⁾를 운영, 국내외 AFD 협력기관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AFD는 “개발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발협력 명사 특강 시리즈를 기획,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Euflo) 등 6인의 명사를 초대하여 현재 전 세계 주요 개발이슈를 파악하고 개발혁신을 도모할 원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 캐나다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2017년 페미니스트 국제원조정책(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을 발표한 이래로, 세계시민성 증진을 위한 중기 행동계획인

18) afd.fr/en/raising-awareness-about-solidarity(검색일: 2021.10.28)

19) <https://www.afd.fr/en/page-thematique-axe/education-citizenship-and-international-solidarity>(검색일: 2021.11.01)

20) <https://www.afd.fr/fr/campus-afd-former-pour-transformer>(검색일: 2021.11.01)

Inspiring Action for Global Citizenship 2019-2023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동 계획의 전략목표는 캐나다 국민의 지구촌 이슈 및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담당 부서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개발혁신, 청소년 참여 등을 추진하는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Innovation Branch이다. 캐나다 외교부²¹⁾는 한국의 KCOC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의(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CIC)에 동 사업의 이행을 위탁하며 CCIC는 매년 2월로 지정된 캐나다 개발협력주간을 활용하여 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다.

또한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청년층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캐나다 개발협력협의회의 연합인 Inter-council Network을 통해 Spur Change Program 2019-2024을 추가로 운영 중이다²²⁾. 캐나다 외교부는 동 사업 참여기관을 연간 수익금 기준 1,000만 불 이하의 시민단체, 교육기관, 민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3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Inter-council Network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온라인에서 배포된 세계시민교육 자료의 수, 온라인 자료 총 이용자 수, 행사 참가자 수로 설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2019년에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변혁적 프로그래밍 등을 주제로 한 Spur Change 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했으며, 2020년에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베냉, 아이티, 콜롬비아,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에서 청년들을 초청하여 자국 청년들과 함께 9개월간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시행하는 Youth Champions Program을 운영하였다²³⁾.

이렇듯 캐나다 외교부의 세계시민교육 사업은 공여기관이 주도하는 지정공모형(Top-down)이 아닌 참여기관이 사업주제를 제안하여 선정하는 자유공모형(Bottom-up)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1) international.gc.ca/world-monde/assets/pdfs/funding-financement/results_based_management-gestion_axee_resultats-guide-en.pdf(검색일: 2021.10.28)

22) Spur Change Program - Inter-Council Network-Réseau de coordination des conseils (icn-rcc.ca)(검색일: 2021.11.29)

23) YCP Youth Champions Program - 2020 - Inter-Council Network-Réseau de coordination des conseils (icn-rcc.ca)(검색일: 2021.11.29)

9.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8개 주요 OECD DAC 회원국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방식은 <표 Ⅲ-2>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2〉 주요국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방식

구 분	해당 국가
민간단체를 통한 사업 위탁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공교육과 연계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수원국 학교와의 자매 결연	영국, 독일
원조 사업 내 주류화	덴마크

첫 번째 형태는 공여기관이 직접 세계시민교육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 방식이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는 한국의 KCOC에 해당하는 자국 내 개발NGO단체협의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모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사례처럼, 공여기관 주도로 세계시민교육과 관계된 민간단체 연합그룹을 별도로 구성하여, 동 그룹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된 세계시민교육 사업 중에서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수원국 현지에서 시행된 사업도 있고, 캐나다의 사례처럼 수원국 청년 대상 초청연수사업도 있다. 이렇듯 사업 방식과 수혜자 범위가 다양한 것은 주로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으로 위탁사업이 이행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형태는 공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의 경우, 공여기관이 국내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지침서를 발간하고, 학생, 교사 및 교장,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한다. 스위스처럼 공여기관이 세계시민교육 전문 강사를 초중고 교육현장에 파견함으로써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형태는 수원국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국 FCDO는 영국문화원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매결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원국 사업비를 지원하며, 독일 BMZ은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을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렇듯 주요국 공여기관들은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도모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Irish Aid의 경우, 교육 기관 및 교육 NGO, 개발협력 NGO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개발교육 연합체를 구축,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 AFD도 유관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세계시민교육 연합체를 별도로 발족하여 정례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통합적 이행을 지향한다.

KOICA 역시 향후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 사업 형태보다는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위탁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뿐 아니라 수원국 내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업 방안을 마련하며,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및 주요 사업 분석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주체는 크게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인 KOICA가 특화해야 할 세부 기능 및 주요 이행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주관하고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며,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이행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은 초·중·고 수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학교교육(형식교육) 위주로, 대학 이상의 성인교육에서는 대학교육 및 학교교육 밖의 학습활동(비형식교육·무형식교육)으로 수행되고 있다(옥일남 외, 2018). 또한 주체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된 개념의 세계시민교육이 사용되기 보다는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개발교육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KOICA의 관련 정책과 조직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국제기구, 특히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인 APCEIU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개발 NGO의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개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히 이행을 해 왔으나, 기관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정책과 조직 현황이 매우 상이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이후 사업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평생학습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하는 학교교육(형식교육)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KOICA가 주도하는 대국민 대상 세계시민교육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교육부와 KOICA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조직을 중심으로 이행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민주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를 통한 정규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통한 비정규교육 모두에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어 왔다(정원규, 2018). 우리나라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2015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像) 중 하나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학습자의 특성과 매우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021년 4월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미래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존중, 자율, 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 반영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1).

-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 운영

〈표 IV-1〉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학습자 특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이 영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체계·구조·이슈에 관한 지식, 세계적 문제와 지역 문제 간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에 대한 이해,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동반한 비판적 탐구와 분석 등 시민 문해력(civic literacy) 습득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포함한다.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이 영역은 정체성·관계·소속감에 대한 이해, 공동의 가치와 인류 보편성에 대한 이해,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다양성과 보편성 간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다.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이 영역은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서, 타인과 환경에 대한 배려의 가치 및 태도, 개인적·사회적 책임과 변화, 지역공동체 참여,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출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7: 21).

이와 관련하여 APCEIU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1년 1월 7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평화 시도교육감 라운드테이블’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평화와 세계 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논의하였다.²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18일 총회에서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를 실천하고 생태 친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2022년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추가하고 평화, 세계시민성, 불평등,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평화 개념을 핵심역량과 학습 주제에도 포함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²⁵⁾ 총론 주요사항(안)은 10월 22일 개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²⁶⁾.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지원을 확대해왔다. 2015년 1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프로그램’하에 직무연수를 시작하여, 3월에는 ‘제1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를 위촉하였다. 특히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 제고’를 설정하고, 한국발 국제 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6).

교육부는 2021년 9월 현재 기획조정실 하에 국제협력관실을 두고 있으며, 국제교육협력 담당관실에서 APCEIU 지원 등의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혁신 지원실 하에 학교혁신정책관실을 두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평화통일 교육, 민주시민 교육, 환경생태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²⁷⁾

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 수준의 확산으로 이어져, 2020년 연구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조직구성 내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과 인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민주시민과, 미래인재과, 교육가정과 등을 중심으로 전담조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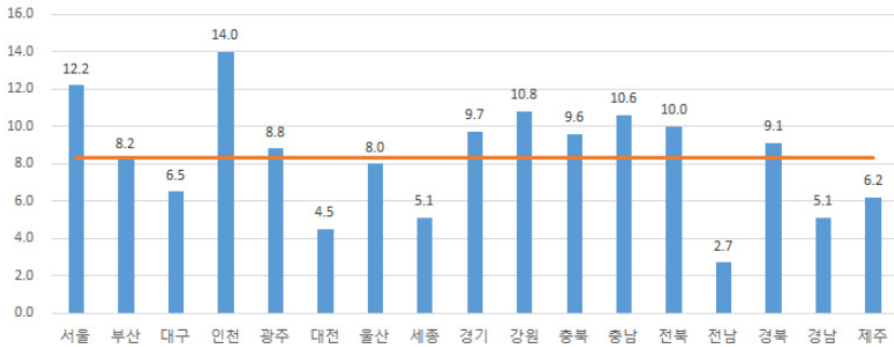
24) 양태섭. (2021.01.11.). "새 초중고 교육과정에 '평화와 세계 시민성, 지속가능성' 포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084800371>(검색일: 2021.11.01.)

25) 김효정. (2021.03.22.). 서울시교육청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대정부 건의. 교육뉴스방송.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4104>(검색일: 2021.11.01.)

26) 교육부. (2021.1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4&opType=N&boardSeq=89363>(검색일: 2021.11.01.)

27) 교육부(<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604&page=0604&s=moe>)(검색일: 2021.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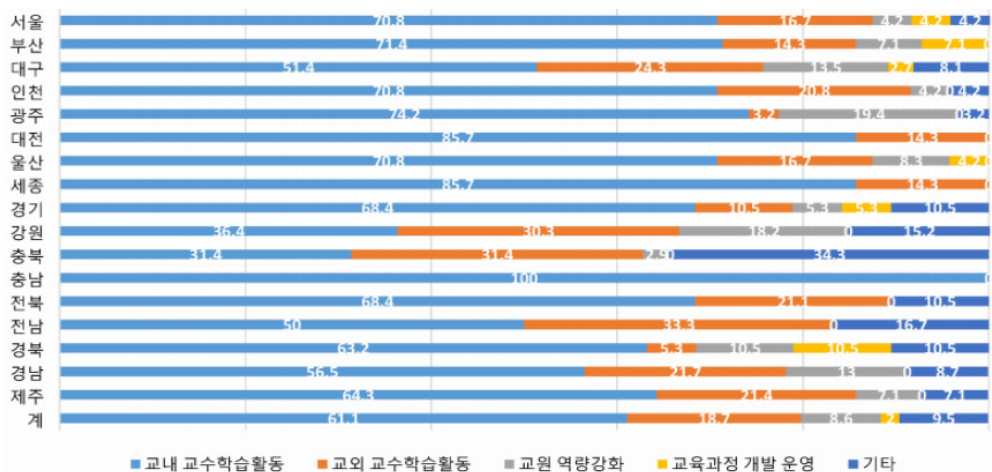
담당인력이 설치되고 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그림 IV-1]과 같이 전체 사업의 약 8.3%에 해당하는 사업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제 영역 및 관련 주제어를 포함한 정책 사업으로 조사되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20a, p.53-55).



[그림 IV-1]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사업비율(2020)

출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20a: 56)

시·도 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사업유형은 교내외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원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교내 교수학습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IV-2] 참조).



[그림 IV-2]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사업유형별 비중(2020)

출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20a: 63)

세계시민교육의 국내 학교현장에서의 이행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환보·조혜승, 2016), 최근 연구들을 통해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라 할 수 있는 이성희(2015)의 연구는 교사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세계시민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전국의 99개교의 교사 196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활용은 매우 저조하며, 사회, 윤리, 도덕 등의 특정 교과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범교과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조대훈(2018)의 연구는 전국적 규모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106개, 초·중·고 7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이후 중앙선도교사 및 각 시·도 교육청별 선도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단위학교와 교과 교실수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아직 분석할 수 없으며,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 정책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세계시민교육은 학교교육의 주요 원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의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박순용·강보라의 연구(2017)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기존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교육적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을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용 중심적 수업보다는 실천을 통한 체험활동을 선호함을 밝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가능성을 검토한 윤노아(2020)의 연구는 자유학기제가 교사들에게 주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판적 세계시민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2) KOICA

한국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인 KOICA는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의 4대 전략 방향으로 SDGs 달성 촉진, 개발협력 파트너십 선도,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 ESG 중심 경영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 전략 방향인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개발협력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세 가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ODA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를 명시하였다. 지난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KOICA 봉사단이 세계시민교육을

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비전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			
핵심 가치	사람 · 평화 · 번영 · 환경 · 파트너십			
경영 방침	통합적 접근 · 디지털 전환 · 전문성 강화			
전략 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 촉진	개발협력 파트너십 선도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	ESG 중심 경영
2025 전략목표	SDG 달성기여도 공여국 중 10위 목표	개발협력 파트너십 자원 누적 10억불 조성	글로벌 개발협력 생태계 누적 10만명 육성	ESG 경영지수 공공부문 최우수 달성
전략 과제	1.1. 협력국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1.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3.1. 경쟁력 있는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	4.1. 탄소중립·안전경영 추진
	1.2. 협력국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도모	2.2. 민간-공공분야 파트너십 활성화	3.2. 협력국과의 지식공유 활성화	4.2. 사회적 가치경영 고도화
	1.3. 협력국 그린·디지털 기반확대	2.3.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3.3. 개발협력 교육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4.3. 윤리·준법, 혁신, 소통경영 구현
실행 과제	1.1.1. 보건안전망 강화 지원	2.1.1. 파트너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3.1.1.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한 현장형 SDGs 인재 양성	4.1.1. 탄소중립경영 추진
	1.1.2. 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주체 참여확대	2.1.2. 현지 CSO의 성장과 상생협력 확대	3.1.2. 개발협력 인재 파견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4.1.2. 글로벌 국민안전체계 확립
	1.1.3. 젠더·평화·인권 등 범분야 및 취약성 지원	2.1.3. 기업파트너십 유형화 및 기업성장 사다리 구현	3.1.3. 비대면연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협력국민 참여 기회 확대	4.1.3. 개발협력 일자리 창출
	1.2.1. 지속가능 농수산 생산증대 및 시장성 강화	2.2.1. 협력국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개발성과 제고	3.2.1. 글로벌연수생육을 통한 협력국 지식공유 강화	4.2.1. 공정한 채용·인사·보수·노사관계 확립
	1.2.2.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지원	2.2.2. 국내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협력 확대	3.2.2. ODA·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4.2.2. 상생협력·지역경제 활성화
	1.3.1.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회복력 지원	2.3.1. 국제기구와의 주체형 파트너십 강화	3.3.1. 국민참여 기반 ODA홍보·인식제고	4.3.1. 윤리·준법·청렴·인권경영 안착
	1.3.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2.3.2. 공여기관, 재단, 민간 등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3.3.2. 사회혁신 및 청년창업 규제혁신 활성화	4.3.2. 국민소통·데이터 개방 기반 투명성·책임성 강화

[그림 IV-3]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 전략체계도 상의 세계시민교육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21c: 30).

통해 국내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활동 경험을 전파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이슈가 국내 사회와 직결된다는 세계시민 의식이 증가되었음에 주목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21c).

특히 금번 KOICA 중장기 경영목표는 대국민 ODA 인식제고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을 넘어 협력국 지식 공유와 글로벌 연대를 강조하여, KOICA의 세계시민교육의 목표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SDGs 달성에의 기여로 중심이동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OICA 세계시민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한국국제협력단, 2021a).

-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장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구촌 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지식을 강화한다.
- 사회정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다양성, 상호의존성 등 개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세계시민으로서 비판적 사고와 균형적인 관점을 갖고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KOICA는 사업전략·파트너십 본부 내에 ODA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산하의 ODA교육팀이 세계시민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ODA교육팀 외에도 글로벌인재교육원, 부산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ODA교육원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 및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및 세계시민의식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ODA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 콘텐츠, 강사풀 등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세계 각국에 파견된 KOICA 봉사단원들의 경험을 세계시민교육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21년 7월 ODA교육원은 ODA연구센터의 ODA교육팀으로 조직 개편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21b).

또한 KOICA는 ODA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홍보실을 두고, 산하에 지구촌체험관을 설립하였다. 지구촌체험관은 국별 전시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식문화체험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전시 국가의 환경, 인권, 분쟁, 빈곤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2020년부터 지구촌체험관 운영 사업은 홍보실에서 ODA교육팀으로 이관되었다.

영월에 위치한 글로벌인재교육원은 글로벌인재사업본부 산하 조직이다. 교육원은 세계시민 및 개발협력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산하에 월드프렌즈빌리지를 설립하고, 지역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1d).

KOICA는 본부조직 이외에도 국내사무소 및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OICA 국내사무소인 부산사무소는 2018년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국 봉사단원이 강사진으로서 직접 KOICA와 ODA를 소개하고 단원들의 해외봉사 경험 공유, 해외 협력현장 소개,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 탐색 등을 제공하고 있다. KOICA는 지역의 ODA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거점대학과 협력해 강원, 대구,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청주에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²⁸⁾ ODA교육팀이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을 담당하며, ODA교육원, 지구촌체험관, 월드프렌즈빌리지 등을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 교재 등을 센터로 배포하여 지역의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각 지역 센터에서 선발된 강사를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각 지역의 학교로 이들 강사를 파견하는 미래세대 특강, 교원 대상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1e).

나. 국제기구

세계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유네스코 기구로서 APCEIU는 국내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으로서 APCEIU는 2장에서 소개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정의, 즉 “모든 연령과 배경의 학습자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능동적으로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세계시민 육성 지향”에 기반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한다(APCEIU, 2019).

28) 한국국제협력단, (2021.09.13.). 청주대에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881131/>(검색일: 2021.09.30.)

APCEIU는 교육자 역량 강화, 연구 및 정책 개발, 정보 공유 및 확산,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세계시민교육 증진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APCEIU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을 실행 및 지원하고 있다.

다. 시민사회단체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은 개발 NGO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들은 1990년대 개발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층적인 단체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박수연, 2017; 신재은, 2017; 이궁연, 2017). 국내 개발 NGO의 세계시민교육을 분석한 연구로는 한국 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신상협, 박수연, 이지연(2014), 신재은(2017)의 연구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을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심희정(2016)의 연구가 있다.

학교교육 밖의 학습활동(비형식교육·무형식교육)의 경우 주체와 활동이 매우 다양하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도 매우 다양하여 자료의 수집 및 비교 분석이 어렵다. 국내 개발 NGO에서 시행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행현황 분석은 KOICA ODA교육원과 KCOC가 2019년 발간한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가이드북」을 토대로 한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은 약 36개 기관²⁹⁾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 기아대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HOE 등이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지구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KOICA ODA교육원·KCOC, 2019).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은 활동에 따라 ① 강사파견/양성, ② 교원역량강화, ③ 캠프/캠페인, ④ 해외활동, ⑤ 기타(학부모 교육, 국제회의, 동아리, 공모전 지원 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활동은 강사파견/양성이며, 다음은 교원역량강화다. 또한 대부분의 NGO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 활동 이외에도 국제회의, 공모전 등 기획 활동과 단발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9) 36개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에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12개 기관(APCEIU, 미지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협회세계연맹, KOICA ODA교육원, KOICA 월드프렌즈빌리지, 국제개발협력센터 (강원, 대구, 인천, 전북, 제주))이 포함됨.

〈표 IV-2〉 국내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유형	개수(개)	기관
강사파견/양성	23	빙고, 고앤두, 굿네이버스, 그린티처스, 기아대책, 더 나은 세상, 미래희망기구, 보니따,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커피, 아프리카인사이트, 코피온, 에너지팜, 온해피,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위드, 캠프, 초록우산,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호이, KCOC
교원역량강화	8	(개발 NGO) 보니따,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프리카인사이트, 월드비전, 위드, 초록우산,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호이
캠프/캠페인	7	(개발 NGO)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미래희망기구, 미지센터,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위드, 아름다운커피
해외활동	4	빙고,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캠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기타	공통	학부모 교육, 동아리 지원, 연구, 국제회의, 콘서트, 공모전, 네트워크 운영 등

출처: KOICA ODA교육원 · KCOC(2019)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라. 평생교육기관

지구촌의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평생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법」을 토대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행정적 지원은 시민교육 영역 확대의 계기가 되고 있다(한승희 외, 2019, p.108).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1개의 지자체가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다³⁰⁾.

나아가 유네스코 제37차 총회가 2013년 11월 승인하고 2015년 발족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에 14개 시도의 총 50개 도시(2020년 12월 기준)가 가입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포용-평생학습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원칙’을 주제로 개최된 제 4차 학습도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CLC)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평등 및 포용 ▲교육 계획 · 모니터링 · 평가 ▲세계시민교육 ▲기업가 정신 ▲건강과 복지, 모두를 위한 교육 ▲문화 등 7개 주제별 클러스터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별로 활동을 주도하는 코디네이터 도시를 선정했다.

30)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http://www.elis.go.kr>)(검색일: 2021.09.01.)

〈표 IV-3〉 국내 GNLC 가입도시 명단(2020년 12월 기준, 총 50곳)

지역(도시수)	가입도시 명단
서울(8)	서대문구, 관악구, 강남구, 성동구, 은평구, 용산구, 도봉구, 송파구
부산(5)	연제구, 사하구, 사상구, 서구, 남구
대구(1)	수성구
인천(1)	연수구
대전(2)	대덕구, 유성구
울산(1)	남구
경기(14)	남양주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오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시흥시, 고양시, 이천시, 연천군, 성남시, 안산시
강원(3)	화천군, 영월군, 인제군
충북(1)	진천군
충남(2)	당진시, 공주시
경북(4)	상주시,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경남(1)	통영시
전북(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진안군
전남(3)	순천시, 영광군, 나주시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news/notice/view/1550/page/0?>)
(검색일: 2021.07.01.)

우리나라는 고양시(교육 계획 · 모니터링 · 평가), 연수구(세계시민교육), 오산시(건강과 복지, 모두를 위한 교육)가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시민참여 교육을 위주로 실행되고 있다(옥일남, 2018, p.82; 한송희, 2020, p.57).

APCEIU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 결과 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91개의 평생교육기관은 세계시민교육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송희, 2020).

2. 주요 사업 현황 및 특성

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 제고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 사업으로는 ① 세계시민교육 모델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 ② 국내 교원을 세계시민교육 선도 전문가로 육성, ③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APCEIU 내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설치를 추진하였다.

교육부 세계시민교육 사업의 특징은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교사의 역량강화, 교재 개발, 체험활동 제공, 국제 네트워크 참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으로는 APCEIU,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PEC국제교육협력원 등이 있다.

교육부의 교사 역량강화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매년 교육청 소속 선도교사와 중앙 선도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중앙 선도교사는 1년에 2차례 상,하반기 APCEIU의 역량강화 심화연수를 받고, 시·도교육청 소속 선도교사들에게 1년에 2차례 전달연수를 실시한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사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결과물을 도출한다. APCEIU는 매년 관계자들과 각 시도 대표 중앙선도교사가 참여하는 연말 발표회를 개최한다(김동택 외, 2020).

서울시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 협업 체계와 관련하여 설문에 참여한 세계 시민교육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속 교사들 시·도교육청-교육부-국제기구의 협력체계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및 ODA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사파견의 경우 국가교육과정 무관한 개발협력연계 기관 의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부적합할 수 있다고 답했다(김동택 외, 2020, p.183-184.).

나. KOICA

KOICA는 세계시민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원, 강사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교재, 브로셔, 교보재 등을 발간해 왔으며, 성남의 지구촌체험관과 영월의 월드프렌즈빌리지를 통해 협력국가 및 글로벌이슈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해 왔다.

KOICA ODA교육팀은 199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 특별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강을 신청한 학교로 KOICA 직원 또는 귀국봉사단 출신 강사를 파견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KOICA 사업 및 협력현장 소개,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탐색 등의 강의를 무료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다.³¹⁾

KOICA의 성인 대상 프로그램 대상은 주로 교원이며, 매년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기본과정인 ‘KOICA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시공미디어 i-Screa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전국 유아, 초등, 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들이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사례를 학교 현장의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심화 과정의 경우에는 하계 방학 기간 1회 전국 초등,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국제개발협력의 눈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바라봄으로써 교원이 먼저 세계시민이 되고, 학교 현장에 세계시민적 요소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³²⁾ 2021년에는 교육개발 NGO (사)HoE와 함께 일반 교원 과정과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밖에 KOICA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워크숍,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2020년에는 개발협력주간 기념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특강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을 개최하였다. 임상우 前 마다가스카르 대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모시고 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강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³³⁾

〈표 IV-4〉 KOICA의 세계시민교육 주요 사업

주요사업	대상
미래세대특강	초중고교생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기본과정(온라인)	유아, 초등,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심화과정(일반/관리자)	초등, 중등 교원
세계시민교육 행사 (워크숍, 특강 등)	초중고 교원, NGO 실무자, 일반인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기본/심화)	해외봉사활동 경험자 등 성인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	만 13-18세 청소년

출처: ODA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oda.koica.go.kr/>) (접속일: 2021.12.01.).

31) ODA교육원(<https://oda.koica.go.kr/course/Student.do>) (검색일: 2021.12.01.)

32) ODA교육원 (<https://oda.koica.go.kr/course/Teach.do>) (검색일: 2021.12.01.)

33) ODA교육원(<https://oda.koica.go.kr/forum/ArticleRead.do?>) (검색일: 2021.12.01.)

KOICA의 세계시민교육은 ODA에 관한 이해 증진, 미래세대의 세계시민교육 확대, 개발교육 파트너십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며, 국내 주요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 제도화를 확산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0). 이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KOICA는 2020년 6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과 국내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³⁴⁾ 약정에 따라 KOICA는 5P(사람,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를 주제로 2개 국립청소년수련원(천안, 평창) 내 세계시민교육 전시관을 설치하였고, KYWA 내부직원 및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및 초·중·고 대상 20개 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 교재를 제공하였다.³⁵⁾

국내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의 경우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포용하여 국내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시행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21a). 2020년도 ‘세계시민교육 참여형 공모 사업’을 신설하였다. 제안 기관은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파트너기관의 특화된 전문성과 창의적 접근이 돋보이는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KOICA 세계시민교육 목표 및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실시 과정에서 필수 교육주제(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의 역할)가 학습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³⁶⁾

다. APCEIU

APCEIU의 국내 세계시민교육 사업은 상기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는 교육자 역량강화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교사연구회 지원, 일반교원 및 평생교육기관 실천가 연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원격연수 프로그램인 세계시민교육 온라인캠퍼스(www.gcedonlinecampus.org)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준별 강좌를 제공한다. 두 번째 범주는 연구 및 정책개발로 정기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를 실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접목한 세계시민교육 초·중등

34) 한국국제협력단 보도자료(2020. 6. 25.), 「코이카,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확산 위해 KYWA와 MOU 체결」

35) 한국국제협력단 보도자료(2020. 11. 25.), 「코이카-KYWA, 지역 청소년 대상 코이카 세계시민교육관 개관」

36) 2021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 안내서

교수학습 지침서 개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등 국내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도 수행하며,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도 지원한다. 세 번째 범주는 정보 교류 및 확산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운영 등이 있다. 네 번째 범주는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로 APCEIU는 국내 SDG 4.7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학계의 세계시민교육 연구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PCEIU는 개발도상국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① 교육과정·교재 개발, ② 교사·공무원·청년 초청연수 및 교사교류 확대, ③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구축 및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5〉 APCEIU 세계시민교육 사업

범주	국내사업	국제사업(국내외 공통)
교육자 역량강화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 교사연구회 지원 • 일반 교원/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글로벌/아태/소지역 연수 • 온라인 캠퍼스 • 아시아지역 교사교류
연구 및 정책개발	• 정책포럼, 이행현황 연구 등 • 교육과정 제안, 교수학습 자료 개발 • 대학 강좌 개설 지원	• 세계시민교육 연례 국제회의 • 아태지역 모니터링 • 개도국 교육과정 개발 지원
정보 교류 및 확산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 콘텐츠 공유, 협력	• 클리어링하우스 • 청소년 국제 사진교실, 모범사례, 상생 등
파트너십/ 네트워크	• 국내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및 운영 (예: SDG 4.7 실무그룹)	• 권역별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

출처: 전문가 토론회 ‘개발 NGO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확대 방안’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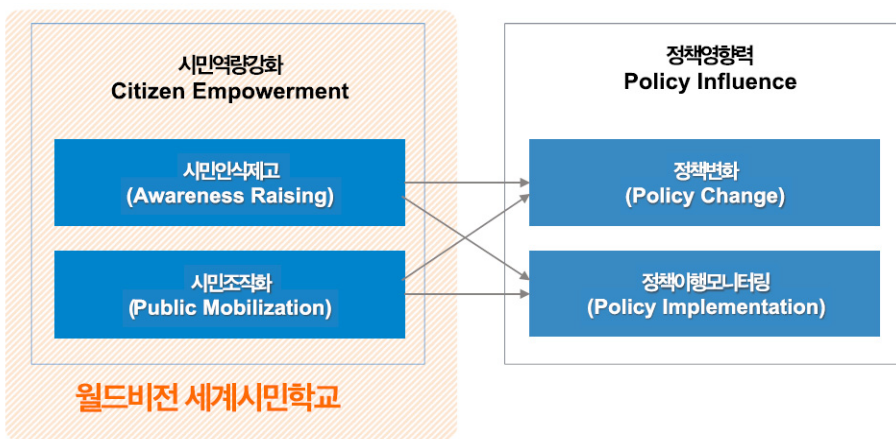
라. 시민사회단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c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은 교육개발협력분과를 통해 2015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해 왔으며³⁷⁾,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의견서 등을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2020).

3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http://kofid.org/ko/forum_intro.php) (검색일: 2021.12.01.)

발전대안 피다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7월 13일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드는 국제개발협력 속 민주시민교육’ 2회차 행사로 <발전의 눈으로 본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³⁸⁾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을 발표한 KCOC에 따르면, 140개 KCOC 회원단체 중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27개(약 19%)이다. KCOC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NGO 세계시민교육의 특징은 ① 기관의 가치, 철학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분야(인권, 평화와 비폭력,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등), ② 지식 습득이 아닌 과정으로의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사업 유형(학교 협력 강사파견/교원연수, 캠프, 청소년/청년 서포터즈 조직, 체험과 운영, 캠페인 등)이라고 밝혔다(이하늬, 2020).

월드비전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을 시민역량강화를 통한 옹호활동으로 본다([그림 IV-4] 참조). 월드비전은 옹호를 ‘인권 및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정책, 제도, 관습, 태도 변화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가난의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또는 사업적 접근’으로 정의하며,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옹호를 위한 사업적 접근이다.



[그림 IV-4]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워크

출처: 전문가 토론회 ‘개발 NGO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확대 방안’ 발표자료.

38) 발전대안 피다(<http://pida.or.kr/56/?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3M6MzoiYWxsIjt9&bmode=view&idx=7137288&t=board>) (검색일: 2021.07.13.)

월드비전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참여를 강조하며, 나아가 상호 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세계시민학교의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내 세계시민학교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시민총회 등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가를 조직하며, 아동권리위원회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의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해왔다.

마. 평생학습도시

최근 들어 세계시민교육을 성남시는 교육청 및 유관기관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결하고 있다.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³⁹⁾

광명시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중점 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전략인 특화 사업모델 발굴을 적극적으로 수행중이다. 광명시는 1998년 「광명시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GNLC에 가입하였다. 광명시는 ‘광명시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체’를 두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교육도시 실현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광명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광명시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목적, 전략 및 과제를 담은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왔다. 2021-202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5차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세계시민교육 중점 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광명특화 세계시민교육 사업모델로 광명 세계시민대학(가칭 ‘Global Citizenship College’, 이하 ‘GCC’) 설립 및 글로벌 인증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광명 GCC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39) 수원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https://learning.seongnam.go.kr/index.do?menu_id=00003386) (검색일: 2021.07.01.)

〈표 IV-6〉 광명 GCC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구분	하위트랙	구성
공통 과정	지역학/광명학	• 민선 7기 시정방침 광명시민의 정체 • 성과 정주의식 • 광명의 지역 이슈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 지속가능발전 사회(SDGs) 세계시민교육으로 산다는 것 • 지구촌 분쟁과 갈등 그리고 화해
	화해와 평화 세계시민교육	• COVID-19 이후 세계시민교육 • 평화교육 및 인권교육 • 다문화시대 지구촌가족의 공생
심화 과정	심화 1단계	• 세계시민성 교육/상호연계성 교육(지구촌 불평등 및 빈곤교육 등) • 인권교육(인권감수성 및 소수자인권교육 등) • 평화/비폭력/인권교육(국가분쟁 및 통일과 가정폭력 등)
	심화 2단계	• 문화다양성 교육(이주민 및 이념과 종교 혼종성 교육 등) • 친환경생활교육(그린에너지 및 지구촌온난화교육 등) • 생활건강교육(전염병 및 약물 남용과 자살, 고령화 관련 교육 등)
	심화 3단계	• 인터넷 관련 교육(가짜 뉴스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외국어 관련 교육, 제2의 인생설계 관련 등) • 경제/노동교육(글로벌 경제 및 이주노동자 교육 등) • 실천적 시민참여교육(시민자치 및 온라인 정치참여 교육 등)
특화 과정	권역 기반 GCC	• 5대 권역별 GCC 캠퍼스 특화과정 • 20개 동별 마을시민학교(GCC 빌리지 거점 센터)
	장소 기반 GCC	① 학습카페/로데오거리 시민학교 ② 퇴근길 동네/시니어클럽 시민학교 ③ 습지생태/동굴 속 시민학교 ④ 이케아/마트/전통시장 시민학교 ⑤ 찜질방/영화관 시민학교 ⑥ 다문화센터/병원 시민학교 ⑦ 광명 KTX/도심터미널 시민학교 ⑧ 구름산숲길/골목길 시민학교 ⑨ 아파트/옥상텃밭 시민학교
	테마 기반 GCC	① 클래식 시민학교 ② 한뼘 시민학교 ③ 낮은 울타리 시민학교 ④ 꼬방동네 시민학교 ⑤ 시네마천국 시민학교 ⑥ 세상 가장 긴 식탁 시민학교 ⑦ 나도 주인공 시민학교 ⑧ 579+ 시민학교 ⑨ 발로 뛰는 시민학교 ⑩ 일상 속 시민학교
	온라인 기반 GCC	① 경기 무크(G-SEEK)와 한국형 무크(K-MOOCs)를 연계한 광명형 무크(GM-MOOCs): 다양한 외부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 연결할 수 있는 포털 플랫폼 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GCC로 온라인 세계시민대학과 광명 미네르바대학 운영 ③ 광명시립 GCC 대학원대학 운영 - 학사 과정(온라인대학): 비학위과정 및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 석박사 과정: 글로벌 시민학 1개 전공 우선 운영

출처: 최운실 외(2020: 124-149)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 과제 중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 제도적 기반 구축을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안하고 다음의 추진내용을 제안하였다.

〈표 IV-7〉 광명시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도적 기반 구축	• 조례 정비: 기존 관련 조례에 세계 시민성 함양에 관한 교육을 추가 명시 • 정책기반 확충: 평생학습원 내에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과 연구를 담당할 조직과 전문 인력 배치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광명, 평생학습의 해(가칭)’ 선언	• 목적: 광명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환경 쇄신 • 방법: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단계적 추진단 구성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
광명특화 세계시민교육 사업모델	• 글로벌 평생학습 복합단지(철망산 평생학습원) 조성 • 광명 세계시민대학(GCC) 글로벌 인증지표 개발 및 국제기구 인증

출처: 강대중 외(2021)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광명시의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전략은 ①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의 브랜드화, ② 특화 사업모델 발굴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브랜드화를 위해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광명시의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광명시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체 보고서는 대규모 세계시민교육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제도적 기반 구축을 포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수원시와 광명시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는 혁신적이고 지역적 맥락에 맞는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의 중요성과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 KOICA의 이러한 도시들 및 평생교육 기관들과의 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기관들의 사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국가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정의·반영되고 있으며, 세계 시민성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공존하고 경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교육(형식교육)과 학교 밖 교육(비형식교육·무형식교육)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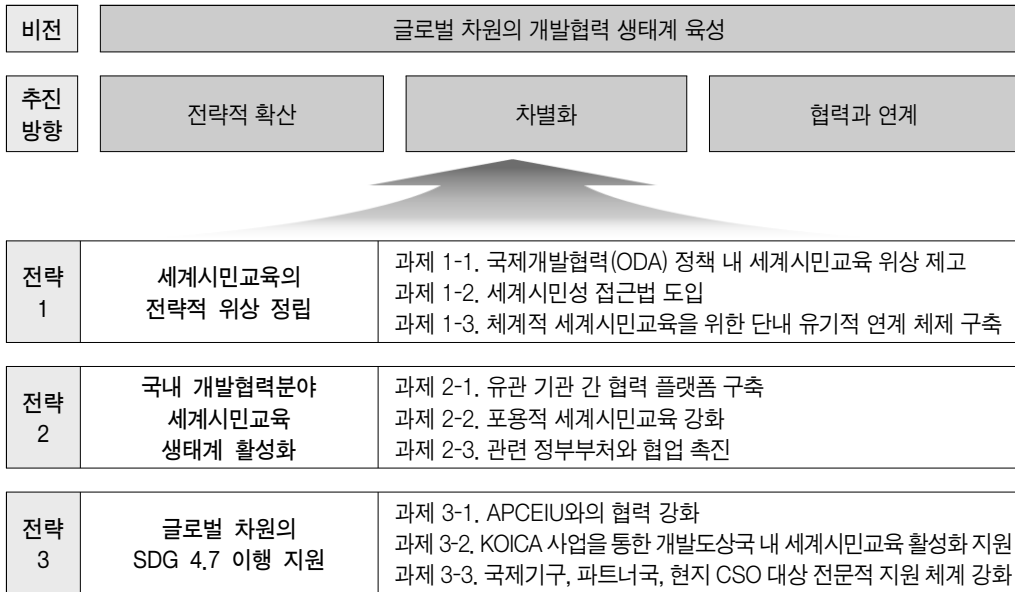
둘째, 학교교육의 경우 현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국제사회가 채택한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학습자의 특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2015년 이후 주요업무계획에 세계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인정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교사 연구회 운영’ 등으로 교과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교사의 국제 활동 및 경력개발로 연계된다. 특히 교사연구회를 통해 교사가 직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계시민교육 교보재를 개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체험활동 등을 위한 교사 및 학교 차원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컬에 적합한 시민사회단체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협업을 통한 양질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과 협업기관의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이 합치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2020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계시민교육 경험 교사들의 다수가 시민사회 및 ODA교육원의 국가교육과정의 맥락과 무관한 개발협력연계 기관 의제 소개, 기부행위 강조, 종교적 편향, 검증되지 않은 교사의 질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

셋째,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은 1990년대 개발교육을 국내에 도입한 개발 NGO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다층적인 단체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지구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의 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으로 방향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은 기관의 가치, 철학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고, 옹호와 같은 참여와 실천을 강조한다. 그러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단발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한국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인 KOICA는 해외봉사단, 연수사업, 해외사무소 등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KOICA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내 사업의 경우 ODA 인지도 증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한 인지도 증진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ODA교육원 중심의 사업운영을 통해 ‘개발협력 인재양성’에 대한 전문성은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의 보다 전략적인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OICA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직간접적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네트워크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1. KOICA 세계시민교육 비전 및 전략 제언



2. 추진방안 제언

가. 세계시민교육의 전략적 위상 정립

1) 국제개발협력(ODA) 정책 내 세계시민교육 위상 제고

- 세계시민교육의 전략적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국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는 5대 개발협력 전략의 이행 기반으로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하위 과제 중 하나로 「ODA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이 명시되어 있음.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내 세계시민교육의 참여대상은 우리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역시 개발협력 인식 제고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드러남.

- 주요국 공여기관들은 개발협력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개발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범주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따라서 중견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역시 현 국제개발협력 정책 내 세계시민교육의 위상 재정립의 노력이 필요함.
- KOICA가 국내 여러 세계시민교육 실행 주체들과 협력을 주도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 시민교육 이행 기반 전략문서를 구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함.

2) 세계시민성 접근법 도입

- KOICA는 중장기경영목표(2018-2023)를 통해 「상호연결성 및 상호의존성 증가에 따른 개발생태계의 범위에 대한 재인식」 요구에 주목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연대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향함.
- 이러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KOICA는 세계시민교육을 사업 단위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의 일부가 아니라, KOICA 전사 차원의 비전과 추진 전략에 내재된 하나의 통합된 접근법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세계시민교육은 그 개념 정의 및 접근방식의 측면에서 다양한 학문적 견해를 보임. KOICA 역시 과거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이 전제했던 세계시민의 개념,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 (예: 특정국가에서 수행된 직업기술교육은 어떠한 세계 시민 또는 세계시민교육을 전제하고 있을까?)
-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으로 KOICA가 육성한 교육전문가 및 교육수혜자는 어떠한 세계시민이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KOICA가 지향해야 할 세계시민의 개념과 역량 도출이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이 기관의 사업 비전과 추진 전략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함.
- 유럽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SDGs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그 편차가 다양하며 젊은 세대에서 그 편차가 더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를 통한 KOICA의 노출을 ‘봉사단 홍보 및 ODA 인식 제고’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강화가 필요함. 특히 KOICA의 미래세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대국민 인식 제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지향점을, SDG 4.7에 대한 기여로 통일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과

노력을 제안함.

- KOICA 정책문서 및 홈페이지 등에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KOICA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조하여 정책 지향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제안함.

3) 체계적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단내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

- KOICA는 단내 다양한 조직이 세계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의 다양한 부서에 의한 분절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전달은 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와 협력국 시민들의 세계시민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ODA교육원의 수행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ODA교육팀을 플랫폼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홍보 및 대국민 인식 제고 활성화를 제안함.
 - 두 번째,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양성의 목적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ODA 교육팀을 주축으로 하여 유관부서의 관련 사업을 조사·분석하고 성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특히 중장기 경영목표 「3.3 개발협력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의 「3.3.1 ODA·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지표: 세계 시민교육 수혜자 수)」와 「3.3.2. 국민 참여 기반 ODA홍보·인식제고(지표: 국민 참여를 통한 콘텐츠 생산 수, 국민 직접 참여 홍보 행사 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KOICA 특화 세계시민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함.
- 이와 관련한 국내 사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평화·세계시민교육 방향 설정 및 학교교육 실행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된 ‘평화·세계시민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정책 연구를 실행하고 있음. 광명시는 ‘광명시 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체’를 두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KOICA 단내 세계시민교육 협의체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세계시민교육 관점 및 요소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부 인력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함. Irish Aid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시민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ODA교육팀이 협력 및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보강을 제안함.

나. 국내 개발협력분야 세계시민교육 생태계 활성화

1) 유관 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 APCEIU, 교육부, 외교부는 유네스코 본부와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공동주최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SDG 4.7에 기여하는 정책과 실천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옴.
- KOICA도 2014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세계시민교육 관계자들의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 사례 공유의 대표적인 행사에 관련 기관들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임.
- 이와 같은 제한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KOICA가 글로벌 차원의 개발생태계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제안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SDG 4.7에 대한 기여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 구체적으로는 외교부(KOICA), 교육부(APCEIU, 국가평생학습진흥원), 여가부(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시민사회(KCOC), 민간부문(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 등)이 연간 사업을 소개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를 창출해내기를 기대함. 사업 방향의 예시로,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의 후원하에 KOICA와 APCEIU가 공동으로 매년 미래세대가 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의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2) 포용적 세계시민교육 강화

- 포용적 세계시민교육은 SDGs 달성을 추구하는 KOICA의 세계시민교육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KOICA 관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KOICA는 세계시민교육의 사각 지대에 있는 비수도권 지방, 취약계층, 노령인구 및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의식에서 멀어진 청년층에 접근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지님.
- 첫째, KOICA는 전국에 유관기관을 두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된 세계시민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세계시민교육 혁신공모사업과 같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포용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제반 환경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취약계층,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아동 등에 대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KOICA의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기를 제안함.

- 둘째,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KOICA는 세계시민교육을 진로체험과 취·창업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현재, KOICA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 역량은 해외봉사단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이를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혁신적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의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의 진로체험 및 교육과 연계하고, 진로박람회 등을 통해 KOICA가 조성하는 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를 제안함. ODA교육팀 홈페이지를 통해 미래세대 대상 세계시민교육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체험형, 교육형, 참여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 체험형(지구촌체험관 및 KOICA 지역 센터 프로그램 참여정보 안내)
 - 교육형(국내외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 소개, 교보재 활용법 안내)
 - 참여형(국내외 CSO 캠페인, 옹호활동, 참여 기회 정보 안내)
- 셋째, KOICA는 정보플랫폼으로서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을 주요 공여국 및 협력국에 소개 및 연계함으로써 다자간 파트너십 활성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KOICA는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정책, 네트워크, 우수사례 등을 국내에 적극 소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선진 공여국의 이해관계자들을 가교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를 제안함. 현재 SDG 4.7지표는 공교육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어, KOICA의 세계시민교육 노력이 국제사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외에 세계시민교육의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공여국 및 협력국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교보재 등을 소개하는 메뉴를 Recent/Most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국외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재 개발 수요를 확인하여 보급 하는 것을 제안함.

3) 관련 정부부처와 협업 촉진

- 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을 통한 확산 및 교원 역량강화를 주요 접근 방법으로 삼고 있는 반면, KOICA는 다양한 관계자가 개발협력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자 간 협업을 촉진해 옴. 대표적인 사례로 KOICA와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은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세계 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운영 및 국립청소년수련원 내 세계시민교육 전시관을 설치함.

- KOICA와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정부부처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교육부와의 협력 방안으로는 평생교육사(교육부)의 경우 선택과목에 시민교육론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대학이 개설한 세계시민교육 혹은 개발협력의 이해 교과목이 유사과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유사과목 심의는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생학습 체계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유사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한 KOICA와 교육부의 협업이 요구됨.
-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매칭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은 총 17개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1). 따라서 KOICA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닝 세계화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대상의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교류협력국 교원에 대한 세계시민교육을 지원방안을 제안함.
- 환경부와의 협력방안으로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과정 협업을 제안함. 사회환경 (<https://www.keep.go.kr/portal/224>) 제도는 시범운영('15~'16)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과정은 지속가능발전과 교육, 지구 환경교육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며 15시간의 자율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 과목 개설을 위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 글로벌 차원의 SDG 4.7 이행 지원

1) APCEIU와의 협력 강화

- KOICA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통해 SDG 4.7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 전문 유네스코 기관인 APCEIU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함. APCEIU는 현재 개도국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사교류 사업, 개도국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임. APCEIU와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교류 사업 참여 국가를 확대하고,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 운영 지원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아울러 개도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및 APCEIU와 협력하여 현지

교육정책가, 교육자, 시민사회 지도자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발굴이 가능함. KOICA와 APCEIU는 2007년부터 유네스코 본부와 삼자 협력 형태로 국내 초청 연수(Fellowship)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음. 동 사업을 통해 매년 25~30명의 아프리카 및 아태 지역 교육정책가, 교육과정개발자 등이 국내에 2달간 체류하며 세계시민교육 주요 주제를 학습하고, 변혁적 교육법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을 향상 한바 코로나 안정화 이후 사업 재개 검토가 필요함.

2) KOICA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내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선진 공여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국가가 수원국 내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은 자국 문화원과의 협력 하에 학교 간 자매결연의 형태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활성화해왔으며, 프랑스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협력국 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이 관련 사업을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V-1〉 협력국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KOICA 사업 개선안

KOICA 사업	개선안
교육부문 프로젝트	교육 중기전략(2021-2025)의 전략목표인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SDG 4.1, 4.5, 4.6, 4.7)과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교육(SDG 4.4)'과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 활용 교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사업 확대
글로벌연수	개발도상국 시민사회활동가를 초청하여 KOICA의 시민사회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수의 일환으로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유네스코 본부 APCEIU 등과 공동 펠로우십 개설
해외봉사단	- 프로젝트 봉사단 및 청년중기봉사단이 개발도상국의 형식/비형식 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세계시민교육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KOICA 세계시민교육 봉사단' 신설 - 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영프로페셔널(YP)을 세종학당재단 및 APCEIU와 협력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 및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에 파견
민관협력	- 민관협력사업의 전략적 목표에 개발도상국의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포함 - 민관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실시 의무화 - 민관협력사업 교육 분야에 '세계시민교육' 신설 - 민관협력사업 교육 분야 활동 중 청소년 리더십, 주민자치, 양성평등, 인권, 환경 등 세계시민교육과 직결되는 주제 활동이 KOICA의 세계시민교육 수혜자 수로 환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국제기구 협력	유네스코협동학교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국제 빈곤 퇴치의 날(10월 17일)' 등을 기념한 교사협력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시상

- KOICA는 해외봉사단, 연수사업, 해외사무소 등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지님. 세계시민교육을 기존의 국내 교육 중심의 사업에서 목표, 개념 및 정의를 확장하여 KOICA 사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세계시민성 관점을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KOICA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내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표 V-1>과 같이 제언함.

3) 국제기구, 협력국, 현지 CSO 대상 전문적 지원 체계 강화

-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글로벌 기구들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UN SDG Action Campaign, The World's Largest Lessons, Mission 4.7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앞서 3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주요 공여기관들은 세계 시민교육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형식을 주된 사업 양식(modality)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독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의 주요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국의 시민사회 협력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운영하며, 이 프로그램 내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분야별, 국가별, 주체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들을 서로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를 제안함. 구체적인 사업 예시로서, KOICA 민관협력사업 현지 파트너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착수 단계에서 세계시민교육 이수를 의무 혹은 권고사항으로 하여, KOICA의 세계시민교육 과정을 공급하고, 현지 CSO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국문

- 강대중. (2021). 제5차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광명시.
- 관계부처 합동. (2021).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광명시평생학습원. (2020). 2019 광명시평생학습원 연간보고서. 광명시평생학습원.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국내외 시민사회 교육개발협력의 동향과 과제 -2015 세계교육포럼 및 국제교육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연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20).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별책 1]. 고시 제 2015-74호.
- 교육부. (2016).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
- 김다원, 이경한. (2017). 한국 국제이해교육 이행 현장에 관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22, 45-95.
- 김동택, 서용덕, 고선규, 김지영, 임재민, 장경원, 홍윤빈, (2020). 서울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복희. (2017). 일본의 국제교육 및 개발교육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3), 93-112.
- 김수정, 강규원. (2018). 한국 세계시민교육 제공의 도전과제 : NGO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 교사들의 인식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10(2), 165-190.
- 김선정. (2018).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 측면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178, 133-159.
- 김은주, 윤수재. (2019). 2019년 ODA 국민인식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진희. (2017). 글로벌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스토리.
- 박경희, 박환보, 김남순. (2018).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23, 41-70.
- 박성호, 한효정, 임후남, 윤선애, 김효정, 윤혜신(2019).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박수연, 이종현, 전지은 (2007). 인도주의적 개발교육을 통한 ODA 역량강화, 제4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집.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박수연, 이상백. (2013).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박수연. (2014).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사례의 정책적 함의. 국제개발협력, 2014(1), 110-124.

박수연. (2015).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박수연. (2017). 유럽의 개발교육 전략, 사례, 현황과 한국의 과제. 국제개발협력, (3), 3-37.

박순용, 이정환, 조대훈, 함영기. (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박순용, 강보라(2017).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2(1), 49-88.

박순용. (2020).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다원성.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임현묵 외 공저), pp. 23~52. 서울: 살림터.

박환보. (2017). 초중등연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2 (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97-124.

박환보, 조혜승. (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 서울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연구.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신상협, 박수연, 이지연. (2013). 개발교육 현황분석 및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과 영국의 개발교육 현황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013.

신재은, 한재광, 이경신. (2010). 한국 개발NGO 교육사업의 현황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2(2), 127-172.

신재은. (2017).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협력, (3), 63-90.

옥일남, 조대훈, 장은주, 이지향. (2018). 다문화시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세계·민주시민교육 과제 및 실천 방향. 국가교육회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맞춤 교수학습 가이드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9).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Towards a Culture of Peac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20a). 2020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20b).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년사 세계시민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배우다 2000-202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성상. (2016).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탐색과 가능성. 아시아교육연구, 17, 1-9.
- 유혜영, 김남순, 박환보. (2017).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9(4), 3-33.
- 이궁연. (2017). 한국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행. 국제개발협력, (3), 39-62.
- 이성희, 김미숙, 송수희, 정바울, 박영, 조윤정. (2015).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인영, 김유연, 문정민, 이규빈, 유성상. (2019).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26, 139-172.
- 이태주. (2005). 선진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교훈. 국제개발협력, 2005(6), 21-33.
- 이하늬. (2020, July 13). 국제개발협력 NGO 세계시민교육.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드는 국제개발협력 속 민주시민교육 2회차 행사. <https://www.youtube.com/watch?v=fIRiZBZB02Q>
- 조대훈, 김다원, 이정우, 이지향, 문우경. (2018).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현황 연구보고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조민서. (2018). 아이의 얼굴에 깃든 발전의 꿈: 한국국제협력단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분석. 문화와 사회, 26(3), 215-272.
- 조혜승. (2016). An Analysis of Tangled Rationale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국제이해교육연구, 11(2), 153-195.
- 최운실, 권재현, 김창엽, 오창환, 이윤석, 현영섭. (2020). '광명 GCC[가칭]' 운영모델 및 글로벌 인증 방안 보고서. 광명시.
- 한경구, 김중훈, 이규영, 조대훈. (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승희, 고영상, 이재준, 이은정. (2019).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재광. (2021).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연구동향 분석. 국제개발협력연구, 13(1), 59-79.
- 한국국제협력단. (2017). [리플렛] KOICA의 세계시민교육(국, 영문). KOICA ODA교육원.
- 한국국제협력단. (2019). 유럽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보도자료(2020. 6. 23.), 「코이카,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확산 위해 KYWA와 MOU 체결」
- 한국국제협력단 보도자료(2020. 11. 25.), 「코이카-KYWA, 지역 청소년 대상 코이카 세계시민교육관 개관」
- 한국국제협력단. (2020). 2020 코이카 연보.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21a). 2021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 안내서.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21b). [브로슈어]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21c). KOICA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21d). 세계시민교육 2: KOICA 교육프로그램 교안 모음. KOICA ODA교육원.
- 한국국제협력단. (2021e). 한국국제협력단 30년사.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21). 2021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 안내서.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각국의 세계 시민 교육 관련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 월드비전. (2015).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 연구. 월드비전.
- KOICA ODA교육원. (2020). ODA교육원 리플렛. KOICA ODA교육원.
- KOICA ODA교육원 · KCOC. (2019).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가이드북. KOICA ODA교육원.

영문

- CONCORD. (201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Europe: How Much Do We Care? Brussels, CONCORD.
- Davies, I., Evans, M., & Reid, A. (2005). Globalising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que of Global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1): 66-89.
- Davies, I., Sant, E., Shultz, L., & Pashby, K. (201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A Critical Introduction to Key Concepts and Debates*. London: Bloomsbury Academic..
- DFID. (2019). Project Completion Review: Global Learning Programme (GLP).
<https://devtracker.fcdo.gov.uk/projects/GB-1-201469/documents/>
- Gaudelli, W. (2009). Heuristics of global citizenship discourses towards curriculum enhancement.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25(1), 67–85.
-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2020). The State of Global Education in Europe 2019. GENE
- Irish Aid (2017a). *Irish Aid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2017–2023*.
<https://www.irishaid.ie/media/irishaid/allwebsitemedia/20newsandpublications/publicationpdfsenglish/Development-Education-Strategy-2017-2023.pdf>
- Irish Aid (2017b). *Irish Aid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2017–2023: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
<https://www.irishaid.ie/media/irishaid/allwebsitemedia/20newsandpublications/publicationpdfsenglish/Performance-Measurement-Framework.pdf>
- Irish Aid (2019). *2018/2019 Results from the Irish Aid Development Educ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
<https://www.irishaid.ie/media/irishaid/whatwedo/whoweworkwith/developmenteducation/2018-2019-PMF-Report.pdf>
- Longstreet, W. S. (1986). Citizenship: The phantom core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3(2), 21–29.
- Moraes, S. E. (2014). Global Citizenship as a Floating Signifier: Lessons from UK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Learning*, 6(2), 27–42.
- OECD. (2012). DAC Peer Review: Korea 2012.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Korea%20CRC%20-%20FINAL%2021%20JAN.pdf>
- Oxfam(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Oxford: Oxfam.
- Pashby, K. & Andreotti, V. O. (2015). Critical global citizenship in theory and practice: Rationales and approaches for an emerging agenda. In J. Harsh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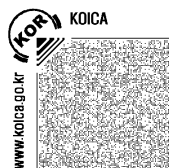
- T. Augustine, & M. Merryfield (Eds.), Research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p. 9–34), Charlotte, NC: IAP.
- Roman, L. G. (2003). Education and the contested meanings of ‘global citizenship’.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4(3), 269–293.
- Sim, H. (2016).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throug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ts Status and Limitations.
- UN. (2012).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New York, UN.
- United Nations SDG Action Campaign. (2017) Mid-term report UN SDG Action Campaign 2016–2017.
- World’s Largest Lesson. (2019). World’s Largest Lesson brochure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 UNESCO. (2018).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19: Migration, Displacement and Education – Building Bridges, not Walls. Paris, UNESCO.

부록. 보이스아이코드

표지 제목



목차



ODA교육 2022-03-038

해외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선도 사례 및
KOICA 향후 추진방안

발 행 2022년 5월

발 행 인 손혁상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교육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명진씨앤피

I S B N 978-89-6469-000-0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해외 공여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선도 사례 및 KOICA 향후 추진방안

